

7일 Market Index			
코스피	3953.76	코스닥	876.81
	(-72.69)		(-21.36)
금리 (한국은행)	2.894	환율 (원·달러)	1461.50
	(+0.060)		(+13.80)

‘간부회동’ 이어 인사 쇄신 단행 이재용, AI 시대 경영 새판짜기

정현호 용퇴로 세대교체 신호탄
사업지원실 출범, 그룹 재편 가속
박학규 등 미전실 라인 전면 배치
젠슨 황 회동 등 글로벌 행보 강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를 수렴하는 ‘뉴삼성’ 체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동안 삼성의 전체적인 이슈와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를 컨트롤해온 정현호 부회장은 용퇴를 결정했다. 이 회장은 그룹을 이끌어온 수장을 교체하고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비상조직으로 운영했던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를 상설화했다. 특히 대중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이 회장은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와 간부 회동에 나서는 등 경영 전면에 나서는 모습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전격 퇴진했다. 정 부회장은 2017년부터 그룹 내 전자 계열사를 총괄하는 사업지원TF장을 맡으며 ‘삼성 2인자’로 불려왔던 인물이다. 삼성은 이와 함께 임시 조직이었던 ‘사업지원TF’를 ‘사업지원실’이라는 상설 조직으로 개편하고, 신임 실장에 박학규 TF 담당 사장을 선임했다. 업계에서는 연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이 회장이 단행한 첫 인사라는 점에서 삼성의 2인자 교체로 인적 쇄신과 사업 재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주



박학규 삼성전자 사업지원실장 사장

목하고 있다.

우선 삼성은 사업지원실을 상설 조직으로 재편하면서 그룹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

박학규 사장은 그룹 미래전략실 경영진단팀장을 지낸 재무 전문가로 삼성전자의 전략 수입과 인사를 총괄한다. 이 회장은 인공지능(AI) 대전환시대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빠른 의사 결정과 강한 업무 추진능력을 갖춘 박 사장을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지원실은 전략팀과 경영진단팀, 피플팀의 3팀 체제로 운영된다. 전략팀장에는 그룹 내 전략통으로 삼성SDI 대표와 삼성글로벌리서치 경영진단실장을 역임한 최윤호 사장을 선임했다. 경영진단팀장에는 주창훈 TF 부사장, 피플팀장에는 문희동 TF 부사장을 각각 임명했다.

세 사람 모두 미전실 출신으로 이 회

장의 신임을 받고 있는 ‘에이스’로 꼽히고 있다.

이 회장은 사법리스크 해소 이후부터 경영 보폭을 넓히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최근 강남에서 엔비디아 젠슨 황 CEO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진행한 ‘간부회동’이다. 이 회장은 지난달 30일 젠슨 황 CEO,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삼성역 간부치킨에서 치맥 회동을 가졌다. 그는 수백 명의 취재진과 시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소맥 러브샷’을 하고 엔비디아 행사 무대에 오르는 등 적극 활동에 나섰다. 회장 취임 후 3년 동안 보여줬던 모습과 상반된 파격 행보다.

이날 이 회장은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AI 동맹을 언급하며 1년 넘게 시도했던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의 엔비디아 공급을 공식화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하워드 러트니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는 등 글로벌 경영 보폭도 넓히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주요 기업들이 연말 인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이 깜짝발표를 한 만큼 재계 인사가 전반적으로 빠르게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며 “삼성외의 경우 작년(11월27일)보다 이른 시점에 후속 인사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신문 ‘아파트의 미학 休&休’ 2025 조정 우수 아파트 시상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메트로아파트조정대상 휴앤휴(休&休)’의 주인공을 선정합니다.

올해 메트로신문 ‘아파트의 미학 휴앤휴’에 소개된 아파트 가운데 ▲조경혁신상 ▲친환경단지상 ▲스마트환경상 ▲미래가치대상 ▲테마조경상 ▲브랜드



지난해 ‘조경혁신대상’을 수상한 GS건설 ‘복수원 자이렉스비아’.

혁신상 ▲커뮤니티혁신상 등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조경, 스마트 첨단 기술의 융복합 구현, 녹지공간 등 아름답고, 편안한 아파트단지 선정을 통해 건설사와 입주인을 응원하기 위한 조정대상입니다. ‘2025 metro 아파트 조정대상 휴앤휴’는 올해 소개된 30여곳을 대상으로 대학 교수 등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1차,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시공사는 물론 아파트 주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심사방식 : 소개 아파트단지 대상으로 심사위원 합의로 선정
- ◆수 상 명 : 조경혁신상 미래가치상 스마트환경상 등
- ◆수상작 선정 : 11월 27일



6개월 만에 건힌 ‘경제 불확실성’ 韓美 관세협상 서명 지연이 관건

KDI “정책 불투명성·대외 변수
경제불확실성 당분간 지속될 듯”

‘경제 불확실성’의 정도를 수치로 보여주는 경제불확실성지수(EPU)가 6개월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지난해 12.3 계엄으로 역대 최고에 달했던 이 지표는 올해 5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하락·안정화한 바 있다.

EPU란 경제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언론매체 등에서 언급되는 빈도를 비롯해 정부 정책의 변화, 전문가 예측 등의 데이터를 계량화한 지표다.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10월 EPU는 9월(166.33) 대비 큰 폭으로 오른 214.0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 이후 6개월 만의 상승 전환이다.

EPU는 정치적 혼란과 정책 불투명성, 대외 불확실성 등이 겹칠 때 수치가 올라간다. 이 지표는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여파로 역대 최고치(472.29)를 찍었다. 이후 올해 4월까지 탄핵 정국과 미국 상호관세 유예 등이 이어지며 등락을 거듭했다. 5월(267.78)부터는 5개월째 하락세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9월에는 166.33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지난해 10월(101.87)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2~3분기를 거치며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확장재정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또 7월 말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며 관세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압박이 불거졌고 최종타결 여부는 미궁에 빠졌다.

다행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미국의 전액 현금·선불 투자 요구를 막아내면서 불확실성이 그나마 다소 해소됐다.

그러나 문제는 한미 간 관세협상의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 서명이 지연되면서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형국이다. 당초 대통령실은 통상·안보 협의 내용을 정리한 팩트시트를 “이번 주(11월 첫째 주) 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미국이 일종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점이 미뤄져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트럼프 행정부 내 관계부처 간 최종 조율이 길어지면서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KDI의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지금 서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은 불확실성 상방 요인”이라며 “미국 사법부가 관세 부과에 대해 법적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있어, 서명 이후에도 정책 불확실성은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4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m-커버스토리

가계-기업-금융, 위태로운 ‘빛의 사슬’

대출 지형도 변화

위기 중심축 ‘기업서 가계로’
서로가 서로의 담보된 구조
한 축 흔들리면 전부 흔들려

은행 대출 지형이 바뀌고 있다. 서로가 서로의 담보가 되는 시대다. 가계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늘리면 부동산 가격은 유지되고, 이를 기반으로 중견 건설사와 시행사는 자금 조달을 확대한다. 이렇게 조성된 프로젝트와 이낸싱(PF) 자금은 다시 부동산 가격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누가 누구를 지탱하는지 분리되지 않고, 한 축이 흔들리면 다른 축도 동시에 흔들릴

수 있는 구조다. <관련기사 3면>

◆부채중심축 기업대출→가계대출
우리나라의 부채 중심축은 시대마다 이동해 왔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대기업 부실과 은행 연쇄도산이 위기의 근원이었다.

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재정브리프에 따르면 1997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금융업종 제외) 비중은 108.6%다.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규모보다 기업들이 빌린 총부채가 더 많다는 의미다.

국내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도 1997년 말 기준 7.04%로 집계됐다. BIS 자기자본

비율은 은행의 자기자본을 위험가산 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국제적으로는 최소8%를 유지해야 하고, 10% 이상이면 우량 은행으로 분류한다. 은행의 대출이 기업대출로 쏠리고, 은행도 이를 감당할 체력을 갖추지 않았다는 의미다.

현재 위기의 근원은 가계대출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22년부터 줄곧 “한국은 1997년에는 기업과 금융부실이 위기의 직접 원인이었지만 지금은 가계부채가 구조적 취약요인”이라며 “가계부채 위기를 경험한 적이 없는 만큼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박은정 “尹, 석 달 만에 영치금 6억5000만원…
탈법 후원 악용”
▲조국, 당대표 출마 영상 선공개… “흔들림 없이
직진하겠다” /사진 뉴시스

▲尹때 폐지된 교육부 ‘민주시민교육팀’ 부활…
李정부 국정과제
▲與, 소방의 날 맞아 “PTSD·우울증 등 심리치
유 지원 정책 강화할 것”

▲대통령특사,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 축하… “실
질협력 강화 희망”
▲주진우 “김만배 동결 자산 800억 중 대부분 반
환… 불법지시로 국고 손실”

강남 신세계百貨, 연매출 4조 눈앞… 글로벌 명품 백화점 대열

3년 연속 누적매출 3조 돌파
추세대로 라면 연매출 4조 달성

연매출 1조 달성 지점 4개→5개
지속적 투자·공간혁신 등 '성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국내 백화점 중 가장 먼저 올해 누적 매출(거래액) 3조원을 돌파하며 매출 4조원 시대에 성큼 다가섰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3조원 돌파 성과를 달성해 왔다. 특히 올해 3조원 달성 시점은 2년 전(12월 24일)보다 두 달, 지난해(11월 28일)보다 3주 앞당긴 최단 기록이다.

◆글로벌 백화점과 경쟁 대열에

9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강남점은 상반기 내수경기 침체 속에서도 11월 초까지 8.1%의 견고한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이 추세로라면 내년 신세계 강남점은 매출 4조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를 넘어 일본의 이세탄 백화점(2024년 기준 약 4.3조원), 영국 해러즈 백화점(2024년 기준 약 4.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8조원) 같은 글로벌 명품 백화점들과의 경쟁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또한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연 매출 1조원 이상을 달성하는 지점이 기존 4개(본점, 강남점, 센텀시티, 대구신세계)에서 5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전신세계 Art & Science는 최근 루이 비통을 새롭게 입점시키는 등 매출 1조원 클럽 가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달성하면 전체 12개 지점(천안아산점 제외) 중 절반 가까운 5개 지점이 매출 1조원 이상을 기록하게 된다.

센텀시티는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긴 올해 11월 말 매출 2조원 달성이 예상된다.

박주형 신세계백화점 대표이사는 “강남점은 매출 3조 조기달성이라는 성과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글로벌 톱(TOP) 백화점으로 올라서 K백화점의 위상을 높ی겠다”며 “강남점을 필두로 전국 주요 거점에서 지역의 랜드마크 점포들로 포진시켜 백화점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속 투자, 공간혁신 통했다

백화점 측은 이러한 성과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와 공간혁신으로 본업 경쟁력을 끌어올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강남점이 끊임없는 투자를 통해 ‘국내 최대 식품관’ 역시 매출 신장에 큰 몫을 했다. 총 6000평(약 2만㎡) 규모의 강남점 식품관은 지난해 선보인 디지털 전문관 ‘스위트파크’와 프리미엄 푸드홀 ‘하우스 오브 신세계’에 이어, 올해 2월 16년 만에 리뉴얼한 ‘신세계 마켓’과 프리미엄 델리 전문관(8월)까지 순차적으로 문을 열어 거대한 ‘미식의

신세계’를 완성했다.

강남점에 따르면 식품관 재단장 이후 매출이 20% 이상 늘었고, 외국인 매출이 71% 이상 급증했다.

명품 매출도 지속 성장 중이다. 올해 강남점 명품 매출은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했다. 특히 불가리, 티파니, 까르띠에, 반클리프 앤 아펠 등 럭셔리 주얼리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올해는 우수고객(VIP)을 중심으로 다양한 위치·주얼리 행사를 진행하며 올 10월까지 전년 대비 매출이 30% 이상 증가했다.

강남점 매출 중 VIP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올해 처음 절반(52%)을 넘겼다. 불황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구매력으로 VIP 전체 매출 또한 8% 넘는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신세계 강남점 관계자는 “VIP 중 엔트리 등급인 레드(구매 금액 500만원 이상) 고객의 수가 10%가량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우수고객의 불륨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향후 강남점의 전망을 밝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수출 증가세 둔화 건설투자 위축에도 소비중심 경기 개선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소비 진작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하지만 미국발 통상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전 세계 교역 부진으로 인해 주요국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도 동시에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발표한 ‘11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 위축과 수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가 ‘경기 다소 개선’이란 표현을 쓴 것은 1년5개월 만이다. 경기 국면이 장기둔화에서 점진적 회복 단계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소비가 시장금리 하락세, 소비 부양책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서비스업생산도 도소매업 등 내수와 밀접한 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한미 무역협정 진전과 미중 무역갈등 완화로 일부 통상여건이 개선됐다”고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 11월 경제동향
“시장금리 하락, 소비 부양책 영향
서비스업생산, 도소매업 중심 회복”

그러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의 통상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글로벌 교역 부진이 주요국 성장세 둔화를 이끌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반도체 경기가 호조세를 유지했으나, 미국 관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파급되며 수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건설투자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9월 전 산업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6.7% 늘면서 전월(-0.4%) 대비 큰 폭의 개선세를 보였다. 이는 추석 명절 이동으로 조업일수가 전년보다 4일 늘어난 것과 더불어, 서비스업(6.2%)·광공업(11.6%)의 동반 상승이 전체 생산을 끌어올린 영향으로 풀이됐다.

소비는 시장금리 하락세와 정부의 2차 소비쿠폰 지급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였다. 9월 소매판매액은 승용차(13.6%→22.1%) 등 내구재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며 2.2% 올랐고, 소비쿠폰 지급에 따라 소매판매의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

10월 수출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명절 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영향이 반영된 수치로, 이를 제외한 9~10월 일평균 수출액 증가율은 3.2%로 8월(5.7%)보다 낮았다.

건설투자는 조업일수 확대와 반도체 공장 등 비주거용 건축의 마무리 공사에 힘입어 감소폭(-17.4%→-4.3%)이 다소 완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다.

최태원 회장 “도메인지식 갖추고 AI 결합해야 혁신 가능”

SK그룹, 2025 CEO세미나
O/I·도메인지식 기반 AI전환 주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고경영진에게 ‘운영개선(O/I)’과 ‘도메인지식(Domain Knowledge)’을 기반으로 한 AI 전환을 주문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각 사의 기본기와 운영체계를 다져야만 AI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SK그룹은 9일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비롯해 주요 계열사 CEO와 임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2025 CEO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AI 대전환기에 맞춘 조직 체질 개선과 사업구조 재편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최태원 회장은 폐회사에서 “O/I가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결국 기본기를 갖추는 것”이라며 “O/I를 하려면 프로세스를 ‘잘 만들었다’보다 실제로 ‘잘 작동하느냐’를 꾸준히 살피는 게



최태원 SK회장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 이천 SKMS연구소에서 열린 ‘2025 SK그룹 CEO세미나’에서 폐회사를 하고 있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적인 바탕 없이 AI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실패를 맞이하는 것과 같다”며 “지난 5~10년간의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O/I를 잘 해야만 그 위에 AI를 더 쌓을 수 있다”며 “본업에서 축적된 전문지식과 경험 즉 도메인지식이 없으면 AI만으로는 일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메인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AI를 결합해야 비로소 경쟁우위와 혁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AI 시대의 사업 전략과 각 사의 AI 기반 비즈니스 모델 강화 방안도 심도 깊게 논의됐다. CEO들은 향후 계열사별 AI 추진 성과와 과제를 주기적으로 공유하며, 그룹 전체의 실행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 회장은 특히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AI 인프라 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SK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AI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진화해야 한다”며 “멤버사 역량을 결집하고 파트너와의 개방적 연대를 통해 대한민국 AI 생태계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이번 세미나에서는 안전·보건·환경(SHE), 정보보안, 준법경영 등 기업의 기본기를 다지는 과제도 집중 점검됐다. 경영진은 그룹 차원의 SHE 경쟁력 제고 핵심 과제를 논의하고 실행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으며, 정보보안을 전략경영의 핵심 영역으로 격상해 개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사회 중심의 자율책임경영 체제를 바탕으로 준법경영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SK 관계자는 “SK그룹은 O/I를 통해 재무구조 안정화를 넘어 사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끌어올릴 것”이라며 “AI 대전환기에도 빠르고 성공적으로 대응해 국가경제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속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낸드가격 급등… 삼성·SK, 고용량 낸드 수요선점 분주

삼성전자, V9 QLC 낸드 양산
SK하이닉스, 美서 AI낸드 소개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대용량 데이터 저장용 낸드플래시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고용량·고성능 제품 중심으로 늘어나는 낸드의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 강화에 분주하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에서 가장 널

리 사용되는 512Gb 트리플레벨셀(TLC) 낸드 칩의 웨이퍼 현물 가격은 지난 5일 기준 상승한 5.51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 대비 14.2% 상승한 수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실적 컨퍼런스를 통해 “수요 급증으로 내년 D램과 낸드를 완판했다”고 밝혔다.

주요 기업들은 낸드플래시 구조를 고성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업계 최초

로 V9(286단) 퀵드레벨셀(QLC) 낸드 양산소식을 알리며 낸드플래시 제품 투자를 본격화했다. 또한 낸드플래시를 기반으로 HBM 하위 계층을 보완하는 ‘고대역폭 낸드’ 개념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식 발표는 없으나 지난 10월 송재혁 삼성전자 최고기술책임자(CTO)가 ‘SEDEX 2025(반도체대전)’ 기조연설에서 “플래시까지 상당한 속도를 요구받고 있

으며 플래시·D램·로직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며 패키징 단위의 융합을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진행된 ‘2025 오픈 컴퓨터 프로젝트(OCP) 글로벌 서밋’ 행사에 참가해 차세대 낸드 스토리지 제품 전략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SK하이닉스는 성능(Performance), 대역폭(Bandwidth), 밀도(Density) 세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AI 낸드(AIN) 제품군을 소개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세종=김연세 기자 kys@

韓 경제성장률, 부채증가 속도 못 따라가 中企 대출 연체율 증가 등 곳곳 위기 신호



/유토이미지

‘부채 리스크’ 고조

우리 정부와 기업, 가계 빚을 모두 합한 총 부채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경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가계와 기업 대출 부실이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종합적인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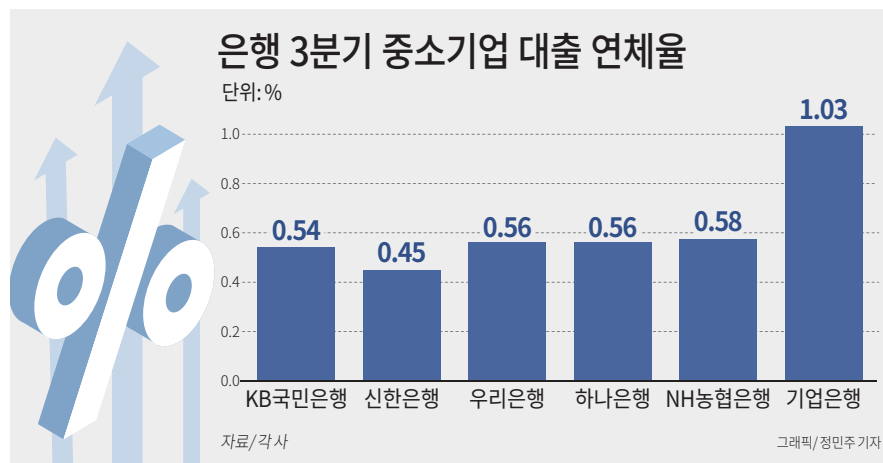
◆ 1분기 총 부채 6373조… 5년새 40% ↑

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48%로 주요 20개국(G20) 평균을 웃돌았다. 2019년 4533조원이던 총 부채가 올 1분기 6373조원으로 5년새 40.6%(1840조원) 늘어난 결과다.

1분기 GDP 대비 총부채 비율 248%
민간·기업, 부채 규모·질 악화 추세
“부실 대응 등 종합적인 관리 필요”

총부채 비율이 선진국에서 가장 빨리 상승한 이유는 분모인 GDP가 분자인 부채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다. 2014~2024년 11년간 명목 경제성장률이 국가 채무 증가율을 넘어선 해는 세차례 뿐이다. 2017년, 2018년엔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p), 0.7%p 앞섰다.

민간 부채도 급증했다. 2021년 GDP의 100%(98.7%)에 육박하던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89.5%까지 감소했지만, 부채 규모는 472조원(25.8%) 까지 증가했다. 기업 부채도 912조원(46.8%) 증가하면서 2019년 GDP의



100%를 밑돌던 기업 부채 비율이 111.3%까지 치솟았다.

부채의 질도 악화됐다. 한국은행이 지난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외부감사 기업 중에서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밑돈 한계기업 비중은 17.1%로 14년 만에 최고치였다.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돌았다는 것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했다는 뜻이다. 중소기업만 따지면 한계기업 비중은 2023년 17.4%에서 지난해 18.0%로 0.6%포인트(p) 올랐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수대기업을 제외하면 기업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는데도 정부는 실업률 상상을 우려해 구조조정에 손을 대지 않았다”며 “그 결과 빚으로 빚을 막아 연명하는 한계기업이 급속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 생산적 금융 기조에 기업대출 ↑

은행들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따라 기업대출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675조8371억원의

로 전달 말(671조877억원)보다 4조7494억원 증가했다. 아직 올해 하반기가 끝나지 않았지만 6월 말(664조868억원) 대비 11조원 7503억원 급증했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중소기업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현상을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생산적 금융’이란 금융사가 단순히 대출을 통해 이자 수익을 추구하기보다 혁신 기업이나 중소·벤처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금융을 말한다.

중소 내 한계기업 비중 18% 달해
주요 은행, 中企 연체율 증가 추세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반증”

다만 정부기조에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주요 은행의 중소기업 연체율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3분기 국민은행의 연체율은 전 분기 0.42%보다 0.12%p 상승한 0.54%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중소

기업 대출 연체율은 국민은행보다 더 높은 0.56%를 기록했다. 모두 201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신한은행만 유일하게 3분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0.45%로 0.5%를 밑돌았다. 농협은행 연체율은 1분기 0.96%, 2분기 0.70%보다 내렸지만 5대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0.58%를 기록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이 가장 많은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연체율은 1.03%로 2010년 3분기 1.0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중소기업 연체율이 뛰면서 기업은행의 모든 대출(가계대출 포함) 연체율은 1.00%로 치솟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생산적금융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 대출이 늘어나는 추세가 연체율 증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본다”며 “중소기업 연체율 증가는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GDP 대비 기업대출 111%… 외환위기 수준

▶▶ 1면 ‘가계-기업-금융’서 계속

올해 2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7%로 1분기(89.4%)와 비교해 0.2%포인트(p) 올랐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말 98.7%로 100%에 육박했지만,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1분기엔 89.4%까지 내려갔다가 2분기에 89.7%로 반등했다. 올해 4~6월 집값 상승 기 대감에 주택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 가계·기업대출 부실 우려 ↑

그러나 앞으로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당시 108.6%였던 GDP 대비 기업대출은 올해 1분기 111.3%로 상승했다. 가계부채가 줄지 않는 가운데 기업부채까지 되레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정부는 생산적 금융 전환 정책

으로 기업대출 비중을 더 키우려 하고 있다. 부동산이나 가계부채로 쏠리는 자금을 혁신기업, 첨단기업, 사회기반시설(SOC) 등 실물경제 성장 부문으로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의도다.

거둬들인 내부 부진 속에 대출 이자조차 못 갚는 한계기업 비중은 14년 만에 최대 수준까지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지난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외부감사 기업 중에서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밑돈 한계기업 비중은 17.1%로 14년 만에 최고치였다.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돌았다는 것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했다는 뜻이다. 중소기업만 따지면 한계기업 비중은 2023년 17.4%에서 지난해 18.0%로 0.6%p 올랐다. 가계·기업·금융이 서로의 담보가 된 구조에서 위기는 ‘연쇄’가 아니라 ‘동시’에 올 수 있다. /나유리 기자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기업 성장의 파트너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우리기업에 맞는 교육훈련을 찾고 계신가요?
HRDoctor가 기업을 진단하고, 적합한 훈련을 처방해드립니다



‘원잠건조계획’ 막판 변수 부상 대통령실 “원만히 마무리될 것”

韓美 조인트 팩트시트 지연

관세 인하·방위비 인상 등 포함
원잠 건조방법·장소 쟁점 전망
일각선 이달 중순경 발표 예상

한미 관세협상이 지난달 말 타결된 후 급방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의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요 이유는 통상 이슈가 아니라 원자력연료 추진 잠수함(원잠)으로 인해 지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최종 발표가 이달 중순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원만히 마무리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인트 팩트시트란 양국이 합의한 사실과 주요 내용을 담은 일종의 설명자료다. 합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인 만큼 공식 협정이나 조약보다 간결한 형태로 작성된다.

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를 통해 대미투자(3500억 달러) 등 한미 관세·안보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는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발표될 팩트시트에서는 관세 15% 인하, 연간 대미 투자금 상한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굿즈 전시품을 관람하며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200억달러 한도 내), 투자 수익 배분율 등이 담긴다. 또 안보 분야에선 한국의 방위비 인상, 동맹 현대화 방안을 비롯해 원잠 건조 계획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이 ‘원잠 건조 계획’으로 인해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관계부처 검토가 길어져서다. 이에 대해 최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안보 분야 일부 문안 조정이 필요해서 논의가 지연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통상 무역 분야가 문제시되는 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대로 발표해도 될 만큼 문구가 완성됐었지만,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면서 “현재는 새 이

슈에 대한 조정도 대체로 마친 상태인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잠 건조 방법·장소 등이 쟁점인 것으로 보인다. 회담에선 원잠의 선체와 원자로는 국내에서, 연료는 미국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체 건조 장소를 미국 내 한화오션 소유의 ‘필리조션소’를 거론하는 등 주장이 다른 상황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는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11월 중순(10~20일) 내 발표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외환당국 개입 가능성… “추가 상승 제한적”

원·달러 환율 급등

美 섀다운 등 시장 불안감 영향
“중·장기적으로 1400원대 유지”

한-미 무역협상 타결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에도 원·달러 환율이 급등(원화 가치 하락)하고 있다. 미 연방정부의 섀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역대 최장기간 지속중인 가운데, 미국의 고용 불안이 위험자산 선호를 축소시켰다. 무역협상에 따른 현금 투자로 외환 흐름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원화 약세의 재료가 됐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는 1456.9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일보다 9.2원(0.63%) 오른 수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이후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된 4월 9일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상승(달러 대비 원화 가치 하락)하는 것은 미 연방정부의 섀다운이 역대 최장기간 지속중인 가운데,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 10월 1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2026년도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중산층의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의 존치 여부를 두고 미 공화당과 미 민주당의 대립이 지속된 영



서울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향이다. 예산 중단으로 안보 기능을 제외한 연방 공무원들은 일시 해고됐다. 당초 미국 내에서는 섀다운이 2주 내 종료될 것이라 관측이 우세했지만, 섀다운은 기존 최장기록인 35일을 넘겨 40일간 지속 중이다.

미국 내 고용 시장이 악화 중이라는 시장의 우려도 위험 자산 선호를 위축시켰다. 미 노동부는 매달 첫째 금요일 직전 월의 고용시장 상황을 담은 고용보고서를 발표한다. 미국의 고용정보업체 쉐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의 보고서는 지난달 15만 3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2003년 이후 최대 하락을 기록했을 것으로 내다봤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중소기업 부문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냉각 움직임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 무역협상 이후 국내 투자가 감

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원화 가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무역협상에 따라 설정된 대미 투자액은 연간 200억달러로, 이는 지난해 대미 흑자액의 약 40%에 해당한다. 정부는 해당 재원을 외환 보유고 운용 수익을 통해 충당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조달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만큼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1400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본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내년도 관세 영향으로 인한 물가 압박이 본격화되고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진다면 미국 시장 금리가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마찰적 요인이 될 것”이라며 “달러에의 강세 압박은 위험자산 투자의 불안을 의미하고, 달러가 해당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원·달러 환율도 1400원대에서 쉽게 내려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진경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외 달러 강세 지속 및 주변 통화 약세 속에서 원화의 상대 약세도 유지되고 있다”라면서 “원·달러 단기 급등으로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환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다소 제한적인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반도체·조선 등 대형주 중심 급상승 전문가들 “실적 장세 이제부터 시작”

코스피 4000 시대

기업 실적 회복세… 고환율 등 변수

“뉴스에서 코스피 4000을 듣고 남편한테 우리집은 올해 주식으로 얼마 벌었냐고 물었더니... 대답 없이 방문 열고 나가버리네요.”(40대 주부 이모씨)

한국 증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스피 4000시대를 열었지만, 문턱을 오르내리고 있다. 일부 대형주만 오르고 나머지는 부진한 이른바 ‘대문자 K’ 장세가 이어지면서 돈맛을 보지 못한 투자자도 적지 않다.

시장에서는 ‘K증시’에 투자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 개미들이 여전히 많다. 전문가들은 한국증시가 여전히 ‘싸다’고 말한다.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우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 저평가됐다는 것이다.

◆ 코스피 상승 여력 충분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올해 64.77%(이하 7월 기준) 상승했다. 홍콩 항셍 지수(+30.81%), 독일 DAX 지수(+19.21%), 미국 나스닥종합 지수(+19.38%), 일본 니케이225 지수(+26.02) 등 주요국 증시 상승세를 압도적으로 제쳤다.

하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얘기는 달라진다. 2022년 말 대비 코스피는 76.79% 상승했다. 같은 기간 나스닥종합 지수와 니케이225 지수는 각각 120.26%, 92.67%씩 올랐다. DAX 지수도 70.45% 가량 상승했다. 2022년 말 대비로는 주요국 증시 상승폭 대비 평균 혹은 평균을 다소 밑도는 수준인 것이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코스피의 올해 상승률은 압도적이지만 2022년 말 대비로는 주요국 증시와 키 맞추기 수준”이라며 “그동안 국내 경제 둔화, 정치 불확실성 및 중국 저가 공세 등으로 저평가됐던 국면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는 단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코스피가 오를 근거는 충분하다.

지수 상승의 뿌리인 기업 실적이 살아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내 3개사 이상 증권사가 실적 전망치를 제시한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247곳 중 147곳이 지난 7월까지 연결 실적을 발표했다. 이들의 3분기 연결 영업이익 총합은 59조 2737억원으로 전망치인 55조 9697억원을 5.9% 가량 상회했다. 또

한 88곳(59.9%)이 컨센서스(시장평균 전망치)를 웃돌았거나 적자폭이 축소됐다.

장기적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조선, 방산, 기계 등이 실적 장세를 주도할 전망이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11.6배인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과 2026년 주당순이익(EPS) 성장률을 함께 그리면 코스피는 내년에도 큰 폭의 주당순이익(EPS) 성장이 전망되지만 밸류에이션은 낮다”고 덧붙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 2025년, 2026년, 2027년 순이익 증가율 컨센서스는 28%, 28%, 12%에 달한다”며 “반도체 이익의 성장성을 감안할 경우 이익모멘텀이 더 강화될 여지가 크다”고 봤다.

기업들은 한국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이 추정한 한국의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평균 1.9%를 기록했다. 이는 9월 말 평균(1.8%)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기업 실적이 살아나면서 ‘투자 확대→고용증가→소비 여력 확대→자본시장 투자 확대’라는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진단한다.

◆ ‘코스피 7500’ 전망, 외국인 ‘팔자’ 부담

KB증권은 지난 6일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가 장기 강세장을 지속할 경우에는 7500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앞서 글로벌 투자는행(IB)인 모건스탠리와 JP모건 등이 ‘코스피 6000 시대’를 전망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내년 코스피의 영업이익은 반도체와 전력이 견인하며 전년 대비 36% 증가한 401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가 예상된다”면서 “코스피 상장 종목들의 호실적이 코스피 지수(목표치 5000선)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돌변한 외국인 태도다. 이달 들어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7조 7262억원어치를 팔았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까지 근접해 상방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수급 방향성이 일시에 반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단기적인 증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며 증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미국 연방 정부 섀다운 해소 여부, 10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엔비디아 실적 등의 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하은 기자 godhe@

흔들리는 부동산… 정책 불투명성 도마위

》1면 ‘6개월 만에 검한…’서 계속

부동산 정책방향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3차례 내놔지만 부동산 시장은 안정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가 보유세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는 “집값을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고 했던 공약과 배치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한 유튜브 TV에 출연해 “보유세가 낮은 건 분명한 사실이고, 부동산의 안정적 관리에서 세제가 빠질 수 없다”며 “취득·보유·양도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중과에 따른 세 부담 증가는 아파트값 급등을 초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해외주식 결국엔 편다니까!

어려운 해외주식도 쉽게!
그러니까
1타지!

- ✓ 노베이스 초보 투자자 ☆☆☆
- ✓ 해외주식만 몇 년째인 N수생 투자자
- ✓ 열심히 할수록 손해보는 현역 투자자

모두 집중!

수학 일타강사
이미지



해외주식 꿀팁
보러가기

하나증권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주식>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주식>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치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해외주식 온라인 매매수수료는 국가별 상이(미국 0.25%, 중국0.3%)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나증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주식 매매시 0.00841% 제비용을 부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나증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5-02805호(2025.07.07~2027.07.06), CC브랜드250702-0027

與 “검찰권 남용·조작 밝힐 것” vs 野 “누가 외압 행사했나”

檢,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김병기 “기계적 항소 관례 고집 尹 구속취소엔 즉시항고 안 했다”

송언석 “檢, 직무유기·직권남용 李 대통령 완전무죄 만들겠다는 뜻”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정권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대장동 사건 1심은 지난달 3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사업의 실세였던 유 전 본부장과 민간사업자들이 결탁한 부패사업으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 5명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아울러, 유동규 전 본부장은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을, 김만배 씨에겐 추징금 428억원을 각각 명령했다. 정 변호사는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8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 결과에 민주당은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간업자간 유착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검찰이 이 대통령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과 이주희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사건이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며 검찰과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에 대한 관련 공소를 취소하라는 입장을 낸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벌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유죄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후 1심 항소 기간이 지날 때까지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 항소를 해야 한다고 보고 내부 결재까지 맡았지만, 이에 대한 보고가 법무부로 넘어가자 상황이 급변했다고 한다.

결국, 검찰의 항소 포기 의혹은 정부의 개입 의혹으로 논란이 됐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8일 논란 하루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검과 중앙지검의

지휘부가 적법타당한 대응을 할 것으로 믿고 내부 절차를 이행하며 기다렸으나 결국 부당한 지시와 지휘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장동 개발 사업 사건 담당 수사팀 일부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 물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상 선고되면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일반적으로 항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수사팀은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기자회견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렇게 원칙을 중시하며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즉시 검찰에 나서야 한다.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도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 검찰권 남용과 조작기소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이

라고 강조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담회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본인도 아니고 일개 민간업자들 앞에서 정치권력으로 부터 독립이라는 수사의 제1원칙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치욕적 조치”라며 “지금 밝혀야 할 가장 핵심적 사안은 과연 누가 항소 포기 외압을 행사했느냐”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며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함으로써 이재명 완전 무죄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고법 판결이 1심 판결보다 낮아지거나 무죄가 나오더라도 검찰은 대법원에 더 이상 상고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이에 따라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에서 7800억원이 넘는 엄청난 비리 자금이 나왔는데, 이를 환수할 방법이 원천 봉쇄됐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현안질의를 열자고 요구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온실가스 감축목표·세법 개정안’ 논의

당·정·대 고위당정협의회

내주 최종 2035 NDC 유엔 제출 예정 세법 개정, 실효성 담보 조치 필요성

당·정·대가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035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와 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논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정·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논의할 세 가지 안건은 모두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들”이라며 “그중에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

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기후 위기가 일상의 재난이 돼 가고 있다. 폭우, 폭염, 산불, 태풍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구를 위해서도,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035 NDC 최종 후보안으로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등의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최종 2035 NDC는 이번 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유엔(국제연합)에 제출돼야 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분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그 기조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세법 개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세법 개정이 타당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들께서 보내준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질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했으나 여당 내에서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박태홍 기자

3대 개혁 드라이브 속 당정 엇박자 우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10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9일자로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검찰·사법·언론 등 예고한 3대 개혁에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임기 내 발생한 ‘당정 엇박자’로 당정관계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이에 동조하는 내란세력 척결을 약속하며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겠다고 당원들에 호소했다. ‘진명(진이재명)’ 후보로 알려진 박찬대 당 대표 후보를 꺾은 정 대표는 정권교체 후 정부의 첫 당 대표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 대표는 “주석 귀경길에 검찰청 해체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로써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또한 검찰 개혁 이슈 외에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권여당의 사법·언론 개혁안을 발표하고 개혁 작업에 매진 중이다.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번번히 막혔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1·2차 상법 개정안 등 주요 경제 입법안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다만, 내란세력의 완벽한 청산과 강력한 개혁을 주장하는 정 대표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내는 일이 많아 우려도 나온다. 또, 정부



·여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기반을 다져야 하는데, 정 대표가 쌓아올린 강경한 이미지와, 야당과 협치하지 않는 모습이 노출되면서 중도층에 소구력이 약하다는 것도 문제다.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 중지법을 놓고 대통령실이 당에 대해 공개 경고를 하는 등 당정관계의 긴장이 드러났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이 필요성을 제기한 재판중지법에 대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하고,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길 당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 대표인 만큼, 잡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당 부산시장위원장 경선에서 탈락한 진명계 유동철 부산 수영지역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분없는 컷오프”라고 반발했다. 유 위원장은 “정 대표가 ‘컷오프 없는 100% 완전경선’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당원의 피선거권과 선택권이 철저히 배제됐다”며 “공정하지 않은 면접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은 ‘당원 주권 시대’를 맞이해 모든 권한을 당원에게 돌려드리고 있으며, 부산시장위원장 선출 역시 이런 기조에서 치러졌다”며 “조강특위가 냉정할 정도로 엄격하게 절차를 진행했다”고 선을 그었다.

/박태홍 기자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비준 동의사항 아냐”

與, 野 ‘비준 대상’ 주장에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이 9일 한미관세협상의 후속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 비준 논쟁을 두고 “관세협상이란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야당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하영 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병기 원내대

표 기자회견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지금 한미관세협상에 대해 비준한다는 소식을 들어보셨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미관세협상을 헌법 제 60조1항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헌법 제 60조 1항에 따르면 ‘국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있다’고 규정한다. 국회 비준

통과를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별도의 국회 비준 절차 없이 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출해 국회에서 처리하면 11월 1일부터 소급돼 인화된 관계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월에는 민생법안 위주로 처리를 할 것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의 11월 처리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11월 국회가 본회의를 두 번 정도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대한민국을 더 높게

AI메모리 기술로 한층 더 빛날 대한민국의 가능성과 자부심
그 중심에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hynix



KB·신한금융, 5년간 110조 규모 생산적·포용금융 추진

첨단산업·지역균형 성장 지원
대출·투자 병행해 자금순환 강화
중소 성장·신산업 생태계 조성
취약계층·민생경제 회복 뒷받침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각각 향후 5년간 110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 금융을 공급한다.

KB금융은 미래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전략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총 110조원 규모 가운데 생산적 금융으로 93조원, 포용금융으로 17조원을 오는 2030년까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생산적금융 93조원은 투자금융 25조원과 전략산업융자(기업대출) 68조원으로 공급한다. 투자금융 부문은 ▲국민성장펀드 10조원 ▲그룹 자체투자 15조원 등으로 구성한다. 전략산업융자의 경우 5년간 68조원 규모로 첨단전략산업 및 유망성장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할 예정



KB국민은행 본점과 신한은행 본점 전경.

/각사

이다.

KB금융은 투자금융 경쟁력을 바탕으로 메가딜(MegaDeal·인수합병 등 초대형 거래) 발굴 및 선제적 금융지원을 통해 국민성장펀드의 조기 성과창출과 성공적 안착을 지원한다. 추가로 15조원 규모의 그룹 자체투자를 통해 생산적금융(자산운용·증권·인베스트) 펀드 결성,

증권의 모험자본 공급, 계열사 인프라·벤처투자 등을 공급한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전략'에 부합하는 지역 성장 프로젝트 발굴을 적극 추진한다. 권역별 핵심 산업과 연계되는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데이터·AI센터, 물류·항만 등 지역맞춤형 전략산업과 사회간접자본(SOC) 복

합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포용금융 17조원은 서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성장과 재기지원,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지원과 채무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추진한다.

신한금융은 국가 핵심산업의 혁신 산업을 높이기 위해 93~98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특히 향후 5년간의 경제상황,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감안해 그룹의 자체적인 금융지원 규모는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생산적 금융 93~98조원은 ▲국민성장펀드 10조원 ▲그룹 자체 투자 최대 15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또 초혁신 경제 성장 추진단을 통해 부동산을 제외한 일반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75조원 규모의 그룹 자체 대출을 공급한다.

그룹 자체적으로 10~15조원의 투자자금을 조성해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영역을 포함한 추가 투자를 병행한다. 이를 통해 국민성장펀드를 뒷받침하고,

코스닥 상장 및 Pre-IPO 단계 기업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도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초혁신 경제 성장지원 추진단을 통해 부동산을 제외한 일반 중소·중견기업에 72~75조원 규모의 그룹 자체 대출을 공급한다.

이밖에도 신한금융은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금융 취약계층의 신용회복 및 재기 지원을 위해 최대 17조원 규모의 포용적 금융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세밀한 자본 관리를 통해 건전성과 성장의 균형을 유지하고, 산업과 민생 전반에 자금이 안정적으로 순환되도록 관리함으로써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의 본질적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요 금융사도 생산적·포용금융에 나선다. 우리금융 80조원, 하나금융 100조원, NH농협금융 108조원 투입을 결정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조좌진의 결단’ 롯데카드, 인사·조직 전부 갈아엎는다

〈롯데카드 대표〉

정보유출 후 본부장 절반 교체
‘정보보호센터’ 대표 직속 격상

롯데카드가 최근 정보유출 사태 이후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섰다. 본부장 절반 이상을 교체한 데 이어 조직개편까지 단행하며 내부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7개 본부 가운데 최근 금융사업본부, 영업본부, 경영관리본부, 디자론키본부 등 4개 본부장을 교체했다.

구영우 금융사업본부 부사장과 한정우 디자론키본부장은 임기 1년을 앞두고 퇴임한다. 김성식 경영관리본부장과 임정빈 영업본부장은 연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회사를 떠나게 됐다.

반면, 이창주 롯데카드 리스크관리 본부장과 전무급인 최재웅 마케팅본부장, 정동훈 전략본부장 등 3인은 유임됐다.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먼저 대표이사 직속 부서로 최용혁 상무를 중심으로 한 ‘정보보호센터’를 격상해 관리한다. 정보보안 책임자인 최용혁 상무는 이번 인적 쇄신 과정에서 자리를 지켰다.

기업문화 정립 및 노사관계를 다루는 ‘ER(Employee Relations)’도 대표이사 직속 부서로 신설한다. 고객 중심이라는 큰 기조 아래 대표이사가 직접 정보보호 업무와 기업문화 및 노사 업무를 한꺼번에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기존 7본부 체제를 1부·6본

부 체제로 개편해 조직 효율화를 꾀했다. 개인 고객 대상 사업 영역 3개 본부를 총괄하는 ‘개인고객사업부’도 새로 신설했다. 기능 중심 조직을 고객 중심 사업 조직으로 전환하는 등 정보유출 사태 이후 대대적 조직 쇄신을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섰다라는 평가다.

이번 인사 및 조직 개편은 예고된 행보였다. 앞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고객정보유출 사고 이후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조직을 기능 중심에서 고객 가치·고객보호 중심으로 전환하고, 연말까지 인적 쇄신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적쇄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조 대표가 인적 쇄신 및 조직 개편과 더불어 본인의 퇴임 가능성

도 시사했기 때문이다.

조 대표는 언론브리핑과 국정감사에서 “저와 임원진의 사임을 포함한 인적 쇄신을 단행하겠다”, “사퇴를 포함해 조직적인 인적 쇄신뿐 아니라 조직 변화, 정보보호 관련 거버넌스 구조 변화까지 제로베이스에서 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까지 본격 진행되면서, 추가 인적쇄신 진행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에 대한 수시검사를 종료하고 이달 10일부터 본격적인 정기검사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이번 정기 검사를 통해 롯데카드의 내부통제 및 경영관리 전반 실태를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대우건설, 원자력 사업단 CEO 직속 편제… 미래동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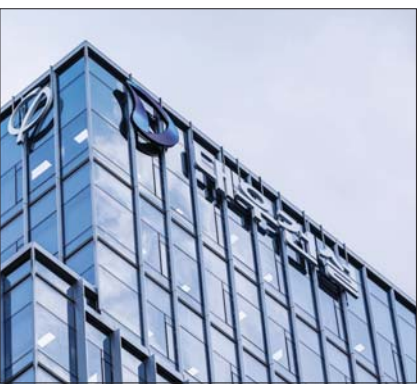
조직개편·임원인사 단행
현장점검 전담직원 추가 배치
스마트건설 조직·인력 확대

대우건설이 원자력 사업단을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두고, 안전관리 조직도 강화했다.

9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관례적인 조직개편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조직운동을 통해 내실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업무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플랜트사업본부 산하 원자력사업단을 CEO 직속 편제로 변경해 회사의 미래 성장동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규 진출국인 투르크메니스탄, 체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코, 모잠비크 현장의 수행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 연중 상시, 프로젝트 중심의 조직체계를 구성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대우건설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민간투자사업,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홍천 양수발전소 1·2호기 등 국내 대형 토목 프로젝트의 촘촘한 사업관

리를 위해 CM조직을 확대 신설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기존의 주택·건축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국내 SOC 및 인프라,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해외사업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조직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위해 최고 안전책임자(CSO) 산하에 본사, 현장을 총괄하는 담당 임원 2인을 선임해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각 지역안전팀에 현장점검 전담직원을 추가 배치해 실질적인 재해 예방 활동에 전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의장사로 선임된 대우건설은 AI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AX데이터팀을 신설했다. AX데이터팀은 전사 AI 전략 총괄 조직으로 AI 플랫폼 개발, 전사 데이터 자

산화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통해 대우건설은 급변하는 건설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및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올해 임원 인사에서는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와 역량 중심의 우수 인재를 선임했다. 특히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40대 젊은 임원이 새롭게 발탁됐으며, 저연차 책임(과장급) 직급의 인재를 AX데이터 팀장으로 임명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내실경영지속, 회사 성장의 원동력이 될 원자력 조직 기반강화 및 건설기술 변화를 이끌 스마트건설 조직 확대가 핵심”이라며 “국내 대표 건설사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글로벌 건설 리더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0@

카드 News

신한카드

코그페 캐시백 이벤트

신한카드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각 부처와 민간이 함께 진행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관련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오는 30일까지 신한솔(SOL) 페이나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응모 고객을 대상으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국내에서 30만원 이상 신한카드로 결제하면 추첨을 통해 100만원(1명), 10만원(10명), 1만원(100명), 1000원(2025명) 캐시백을 지급한다.

또, 같은 기간 이벤트 응모 후 전국 1만여 개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는 2000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애플리케이션에 신한카드를 처음 등록하는 고객을 위한 혜택도 마련됐다. 3만원 이상 결제 후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5000명에게 1만원을 캐시백 해준다.

KB국민카드

TBX 이용고객 캐시백

KB국민카드는 트럭, 버스 전문 매장인 한국타이어 티비엑스(TBX)와 제휴를 맺고, TBX 이용고객 대상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겨울철 맞이 차량 정비 및 타이어 교체 시즌에 맞춰 ‘KB 국민 TBX카드’로 매장에서 합산 40만원 이상 이용 고객에게 최대 10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KB 국민 TBX카드 라이트할부 이벤트도 마련됐다.

라이트할부는 30만원 이상 12개월, 18개월, 24개월 할부로 결제하고 이후 이자가 포함된 금액을 원금 균등 방식으로 상환하는 할부 서비스다.

/안재선 기자

LG엔솔, 전기차 충전·주행패턴 분석… 배터리 수명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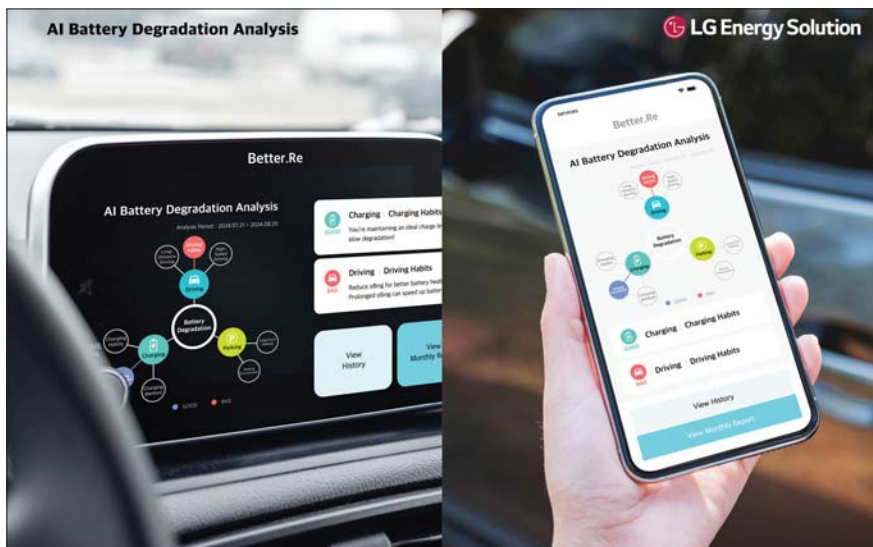
배터리관리시스템 고도화 박차
AI기반 수명예측 알고리즘 적용
‘배터.리 솔루션’ 이상현상 예측

3만대 이상 빅데이터로 정확도 높여
삼성SDI·SK온, 진단시스템 운영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과 수명 관리가 제조사들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셀 제조·공급 과정에서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충전·주행 패턴과 운전 습관을 종합 분석하고 배터리 효율 저하나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단순한 내부 이상 탐지 수준을 넘어 실제 운행 환경 전반을 반영한 ‘예측형 관리 체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수명 예측 알고리즘을 적용한 ‘Better.Re(배터.리)’ 솔루션을 통해 배터리 이상 현상을 사전에 예측해 수명을 최대 두 배까지 연장하는 기술을 구현했다. 약 12억km에



LG에너지솔루션 Better.Re CES 혁신상 수상.

/LG에너지솔루션

달하는 실제 주행 데이터를 분석해 충전·주차·운전 습관별 배터리 사용 패턴을 정밀 진단하고 이에 따라 최적의 관리 가이드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비원스(B.once)’ 플랫폼을 통해 5분 이내 단 한 번의 진단으로 배터리 잔존 용량, 전압, 온도 등을 종합 분석한 상태 리포트를 발급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3만 대 이상의 전기차에서 수집한 빅데이터와 1만 건이 넘는 배터리 관리 및 진단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진단 정확도를 높였다. 업

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운전 패턴과 사용 환경까지 통합 분석하는 예측형 관리 시스템을 상용화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배터리 진단 분야에서 한 발 앞선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LG에너지솔루션이 예측형 진단 시스템을 통해 배터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SDI와 SK온도 자사 기술을 바탕으로 진단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삼성SDI는 소프트웨어 기반 BMS

진단 시스템을 통해 셀 내부 이상과 리튬 석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충전 효율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SK온은 배터리 셀에 무선 칩을 부착한 무선 BMS를 도입해 각 셀의 생산 공정부터 원산지, 사용 기간, 재활용 가능성까지 이력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배터리의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액침 냉각 효율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배터리 상태를 진단하고 열화 수준을 예측하는 기술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중고 전기차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배터리의 진단 정보와 각종 데이터는 수명과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완전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만큼, 이러한 진단과 예측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LG에너지솔루션은 관련 연구를 꾸준히 이어가는 등 업계에서 한발 앞선 기업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LG전자

협력사와 동반성장 상생협력 방안 논의

LG전자 경영진이 협력사 대표들과 한 자리에 모여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하는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LG전자는 7일 경기도 평택 LG디지털파크에서 ‘협력회 워크숍’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협력회는 LG전자 협력사들이 동반성장을 위해 조성한 자발적 협의체다.

조주완 LG전자 CEO는 환영사를 통해 “올 한 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경영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협력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협력사는 LG전자의 가족이자 고객인 만큼, 여러 당면한 과제에 함께 대응하며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협력회 역시 “LG전자와 협력해 스마트팩토리 솔루션과 플랫폼 구축에 적극 나서 품질 개선, 생산성 향상 등 제조 경쟁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사업 기회 발굴을 위해 연구개발(R&D)도 지속 강화해 ‘질적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글로벌 선박 노후화에 교체 본격화… K-조선 수주기회

세계 탱커 노후선박 1400척 이상
노후선 누적 대비 신조 투입 더터
원유 수송량 증가, VLCC 투입 확대

전 세계 원유운반선(탱커) 선대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내년부터 교체 발주 수요가 본격화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원유 수송 물량은 늘어나는 반면 신규 발주는 제한되면서 탱커 공급이 위축됨에 따라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과 수에즈막스급 등 탱커 수요가 확대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중대형 탱커 건조에 우위를 지키는 한국 조선업계가 수주 기회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해운 분석업체 AXS마린(AXS Marine)에 따르면 전 세계 탱커 평균

선령은 지난 2018년에 10년 초반에서 올해 14년대 중반 수준으로 높아졌다. 21년 이상 노후 선박은 같은 기간 400척 미만에서 1400척 이상으로 약 3배 늘어났고, 16~20년형 ‘중년급’ 선박도 약 750척에서 2200척 이상으로 증가했다. 중년급은 연료 효율 저하·정비비 부담·운항 중단 리스크가 가파르게 높아지는 구간으로 선박 교체 검토가 본격화되는 시점으로 꼽힌다.

반면 폐선·해체는 지난 2022년 이후 급감했고, 환경규제·연료전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조 발주도 더딘 상황이다. 현재 글로벌 탱커 수주잔량(오더북)은 전체 선대 대비 약 14% 수준으로, 일반적 균형 구간(20~25%)에 비해 낮다. 이로 인해 선대 증가는 연 1~

2% 수준에 그치고 있다. 노후선 누적 대비 신조 투입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 타이트 상태가 고착되는 모양새다.

수요 여건은 완만한 개선에 무게가 실린다. OPEC+ 주요 산유국들은 최근 자발적 감산분 중 일부(일일 13만 7000 배럴)를 오는 12월부터 단계적으로 되돌리기로 해 원유 생산·수출이 저점 통과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러시아 제재와 중동·미국발 원유 수송량 증가로 항로 거리가 길어지면서 VLCC 투입이 확대되고 있다. VLCC가 장거리 노선에 묶이면 가용 선박이 줄어들어 수에즈막스·아프리카막스급 중형 탱커가 대체 투입되는 ‘연쇄 수요’도 함께 발생한다.

한국 조선소는 대형 탱커 신조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화오션이 글로벌 VLCC 수주잔량의 약 20%를 보유하고,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삼호가 각각 약 14%, 11% 수준으로 뒤를 잇는다. 오더북 기준 한국 조선사의 비중은 약 45~50%로 절반정도를 담당한다. 수에즈막스급에서도 삼성중공업이 약 19%로 선두권이며, HD현대중공업·HD현대삼호가 각각 16% 내외를 기록하는 등 중대형 탱커 신조 시장은 한국·중국 양강 구도가 뚜렷하다. 이 때문에 노후선 교체 수요가 발주로 연결될 경우 수주 기회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지난 7일 현대차 강남대로 사옥에 위치한 UX 스튜디오 서울에서 관계자들이 ‘수도권 광역 노선 수소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수도권 광역 노선 수소버스 도입 지원

현대자동차가 정부 및 국내 운수 업체와 함께 수소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수송 부문 탈탄소화에 적극 나선다.

9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후에너지환경부, K1 모빌리티그룹, 하이넷(수소에너지네트워크),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지난 7일 현대차 강남대로 사옥 내 UX 스튜디오 서울에서 수도권 광역 노선 수소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2030년까지 K1 모빌리티의 광역 노선 차량 총 300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이를 기반으로 전체 광역 버스의 25%를 2030년 수소버스로 운행한다는 정부의 목표 달성에 힘을 보탠다.

현대차는 K1 모빌리티에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를 적기에 공급하고 수소버스 특화 정비 교육을 제공한다.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는 1회 충전 시 최대 960.4km 주행이 가능한 고속형 대형버스다. 전기버스 대비 충전 시간이 짧고 주행 가능 거리가 길어 광역 노선 운행에 적합하다.

/양성운 기자 ysw@

“소형SUV보다 훨씬 큰 느낌… ‘제법 든든한 차’”

자동차 시승기

도심 출퇴근길·서울 근교 주행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등 고급화
보조금 감안땀 3000만원 중반대

사흘 동안 EV3와 함께 지냈다. 도심 출퇴근길부터 주말 근교 주행까지, 이 차는 단순한 효율을 넘어 기아가 말하는 ‘전기차 대중화’의 진심을 보여줬다.

처음 마주한 EV3는 소형 SUV보다 훨씬 크고 안정적이다. 낮은 차체와 단단한 비틀, 수직형 헤드램프와 사선 범퍼가 대형 SUV EV9의 패밀리룩을 잇는다. 주차장에서도 존재감이 뚜렷해

‘작은 차’보다는 ‘든든한 차’라는 인상을 준다. 실내는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패브릭 대시보드, 정리된 버튼 구성이 조화를 이루며 ‘거실 같은 편안함’을 만든다.

센터 콘솔의 슬라이딩 테이블은 EV3만의 실용적인 아이디어다. 커피나 노트북을 올려 잠시 일하기에 알맞고, 시동을 켜면 정숙함이 감싸며 가속페달을 밟으면 부드럽게 속도가 오른다. 저속에서도 울컥거림이 없고, 고속에서도 묵직한 안정감이 유지된다.

‘아이페달 3.0’은 EV3의 핵심이다. 가속페달 하나로 속도를 제어하는 원페달 주행이 가능하며, 회생제동 강도

조절로 감속이 자연스럽다. 도심에서는 브레이크를 거의 밟지 않아도 충분했다. AI 어시스턴트는 “헤이 기아” 한마디로 충전소를 찾고 날씨를 알려주는 등 대화하듯 정보를 제공한다.

고속도로에서는 HDA2가 차선을 유지하며 장거리 피로를 줄인다. 공간 활용성도 뛰어나 앞좌석 다리 공간이 넓고, 뒷좌석은 성인 두 명이 편하게 앉을 수 있다. 트렁크에는 여행용 캐리어 3개가 들어간다.

81.4kWh 배터리를 탑재한 롱레인지 모델은 완충 시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며, 급속 충전 시 30분이면 80%까지 충전된다. 노면 충격은 부드럽게 흡



기아 소형 전기 SUV EV3 외관. /이승용 기자

수되고 전기차 특유의 울렁거림도 최소화됐다.

보조금을 감안하면 3000만원대 중반에 구매할 수 있지만 완성도는 그 이상이다. EV3는 ‘작지만 멀리 가는 전기차’, 불편하다는 편견을 깬 합리적이면서 세련된 선택이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항공업계, ‘하늘길 과포화’ 시대… “美 구조조정 재현 가능성”

사상 첫 11개 항공사 동시 운항
중복노선 급증… 운임경쟁 심화
“차별화 전략으로 생존 해법 찾아야”

한국 항공업계가 사상 처음으로 11개 항공사가 동시에 운항하는 ‘하늘길 과포화’ 시대를 맞았다. 엔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정점을 지나 둔화되는 가운데, 좌석과 항공기 수가 지난 2019년보다 더 늘어나면서 공급 과잉이 본격화되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에 따르면 올해 국내 항공 좌석 수는 2841만석으로 지난 2019년(2698만석)대비 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객기 수는 375대에서 405대로 8% 늘었고, 그중 LCC 비중이 176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올해 상반기 탑승객 수는 2463만명으로 지난 2019년(2330만명) 대비 5.7% 증가에 그쳤다. 좌석당 여객이 채워



제주항공 B737-8 항공기.

/제주항공

지지 않았다는 말이다. LCC들의 잉여좌석은 378만5197석으로 지난 2019년 상반기(368만5526석)를 웃돌았다.

항공기를 이용한 여행은 연례행사처럼 자리잡았지만, 고환율과 소비 여력 위축으로 추가 성장세는 꺾였다. 국내 항공사들이 성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항공사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대비 국토가 100분의 1 수준이지만 항공사 수는 비슷하다. 한정된 하늘길에 공급이 몰리면서 중복 노선이 급증했고, 운임 경쟁으로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LCC 9곳은 일본·중화권·동남아 단거리 노선에 집중하면서, 동일 구간 운항이 늘고 운임이 하락했다. 지난 9월

기준 제주항공은 일본 5개, 중화권 6개, 동남아 4개 등 총 15개 단독 노선을 확보했지만, 나머지 항공사들은 대부분 중복 구간에 집중돼 있다

재무구조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주요 LCC는 평균 리스 항공기 비율이 60~70% 수준으로 대부분 달러로 결제된다. IFRS 16 회계기준 적용으로 운용리스도 부채로 잡히며 표면 부채가 커지게 되면서 일부 항공사들의 부채 비율 역시 500%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수익원의 추가 리스비용이 발생하게 되면서 수익성 악화를 가속화시킨다.

시장에서는 이미 구조조정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부 중소항공사는 자본 여력이 부족해 신규 항공기 도입과 정비비용 부담을 버티기 어렵고, 국제선 노선 중복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미국 스피릿항공이 리스기 비율 77%, 노선 중복률 83%로 파산 위기에 몰린 것처럼, 한국

에서도 재무 구조가 취약한 항공사부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미국에서는 지난 1978년 미 항공 규제완화법(Deregulation Act) 시행 후 운임·노선 규제가 풀리자 7년 사이 110개 신생 항공사가 생겼지만, 99개가 문을 닫았다. 팬암·이스턴·TWA 등 굵직한 대형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과잉 공급과 출혈 경쟁, 자본력 부족이 연쇄 도산을 불렀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사 특성상 고정비 비중이 높아 탑승률이 조금만 떨어져도 손실이 커진다”며 “정부는 슬롯과 노선 관리로 속도를 조절하고 시장은 환율과 유가로 체력을 검증하면서 항공사들은 차별화 전략으로 생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가 한정된 한국 시장에서 11개 항공사가 공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국이 경험한 구조조정 시나리오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K-반도체기업, 효율중심 설계 강화… 실질 성능 높인다

반도체업계, ‘전력효율’ 지표 주목
삼성전자 HBM-PIM 아키텍처 개발
SK하이닉스 MR-MUF 공법 상용화

대규모 반도체 팹 건설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업계 전반에서 기존 FLOPS(초당 부동소수점 연산) 중심의 성능 평가 대신 ‘전력 효율’을 중시하는 새로운 지표 체계가 주목받고 있다. AI 반도체 고성능화로 소비전력이 폭증하자 연산량보다 에너지 효율이 경쟁력을 나타내는 핵심 기준으로 부상한 것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메타 등 글로벌 반도체·AI 기업들은 기존 연산 속도 기반의 평가 실효성을 지적하며 ‘대역폭당 전력(bandwidth per watt)’ 등 효율 단위를 중심으로 한 지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산의 ‘질값’ 보다는 동일한 전력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생성·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해 반도체의 실질 성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재편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평택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이는 반도체 구조에서 데이터 이동 효율과 메모리 대역폭이 성능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 것과 맞물려 있다. 기존에는 칩 자체의 FLOPS가 성능을 좌우했지만, 이제는 연산보다 데이터가 이동하는 경로와 속도가 전체 처리 효율을 결정하는 추세다. 연산 능력이 남아 있어도 메모리 접근이 지연되면 시스템 전력 소모가 급증하고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연산·메모리·패키징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공동 최적화’ 접근 방식 역시

확산하고 있다. 칩 내부에서 데이터를 불필요하게 이동시키지 않도록 구조를 단순화하고 메모리와 연산 기능을 가까이 배치해 병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효율 중심의 산업 전환은 지속가능한 경쟁구조 구축과도 맞닿아 있다. 전력비용 급증과 냉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효율 지표 도입은 장기적으로 투자 효율을 높이고, 반도체 설계·AI 모델·데이터센터 운영 전 과정이 에너지 절감 중심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

다. 향후 고대역폭메모리(HBM)·메모리 내 연산(PIM)·CXL 등 메모리 및 패키징 기술 발전이 ‘효율 경쟁’으로 이어지며, 효율 기반 성능 지표가 반도체 개발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잡을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국내 기업들도 효율 중심의 설계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AI 처리용 반도체를 겨냥해 연산 기능을 메모리 내부에 통합한 HBM-PIM 아키텍처를 개발, 기존 대비 최대 70%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확보했다. SK하이닉스는 발열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는 MR-MUF 공법을 상용화하고 HBM의 전력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어떻게 더 많은 정보를 더 적은 전력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로 귀결된다”며 “향후 절대 연산량보다 효율을 중심으로 한 지표가 반도체 산업의 새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희준 기자 nauta@

소공연-백퍼센트 ‘카본 페이 사업’ MOU

소상공인연합회가 ‘충전되지’와 손잡고 소상공인의 에너지 절감을 돕는다.

9일 소공연에 따르면 국내 최대의 보조배터리 공유서비스 충전되지 운영사 백퍼센트와 ‘카본 페이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전국 소상공인의 에너지 절감 및 탄소 저감 활동을 지원하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전국 각지의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을 대상으로 ‘카본 페이’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참여 사업장의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절감량에 따라 카본페이로 보상해주는 시스템을 갖췄다. 별도의 회원 가입이나 증빙 없이 ‘에너지 절약 동의’만으로 참여 가능하며, 보상 한도는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 감축률 기준 연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소상공인 AI 활용 교육’ 참가자 모집

네이버·카카오 등 현장 교육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와 네이버, 뽀띠테크놀로지스, 카카오가 소상공인의 인공지능(AI) 활용 능력 계고를 돕는다.

중기부는 ‘2025년 소상공인 상생협업 교육(소상공인 AI 활용 교육)’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AI 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실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했다.

교육을 지원하는 3개사가 직접 기획한 커리큘럼에 따라 현장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교육은 서울, 경기, 광주, 대전, 대구, 부산, 제주 7개 지역에서 교육과정이 개설되고 기관별 교육 내용, 교육 장소, 교육 일정 등을 고려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의 참여를 위해 1개 기관의 1개 과정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장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은 유튜브 채널(공사장TV)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소상공인 지식배움터’를 통해 관련된 AI 교육 콘텐츠도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는 서울, 부산, 광주의 네이버스퀘어에서 4회의 현장 교육을 개설할 계획이다. 네이버의 전문 강사진이 뷰티, 쇼핑, 외식 분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AI 교육을 클로바X(Clova X)를 활용해 진행한다.

뽀띠테크놀로지스는 서울, 대구에서 전 업종의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AI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뽀띠(Wrtn), 챗GPT, 퍼플렉시티(Perplexity) 등 활용도가 높은 AI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사용법을 교육할 계획이다.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에서의 AI 교육 경험이 많은 뽀띠의 전문 강사진이 강의를 맡는다.

카카오는 제주, 경기, 서울, 대전에서 관광, 외식, 서비스,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소상공인에 대한 AI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챗GPT, 미드저니(Midjourney), 카나나(Kanana)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운영하며, 카카오테크 AI-스쿨 사장님 클래스’에서 활동 중인 AI 교육 전문가가 오프라인 강사로 참여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소상공인도 AI 활용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 “향후 다양한 민간 AI 선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AI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진공 누리집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코웨이 비렉스 코지 프레임 출시

코웨이가 모던한 디자인과 쿠션형 헤드보드로 편안한 휴식을 선사하는 ‘비렉스 코지 프레임(사진)’을 출시했다.



9일 코웨이에 따르면 신제품 ‘비렉스 코지 프레임’은 투 매트리스 타입으로, 모던 인테리어 트렌드에 어울리는 미니멀한 디자인에 다양한 소재와 컬러의 선택을 더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사이즈부터 헤드보드, 파운데이션까지 다채로운 조합이 가능해 개인 취향이 나 공간 분위기에 맞춰 구성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통신3사 실적에 드러난 ‘해킹 여파’

3분기 영업익 전년比 약 40% 급감

통신 3사, 합산 영업익 7483억
SKT, 484억 기록… 90.9% 폭락
무선 서비스 매출 지각변동 영향
간접적 손실 내년 1분기까지 지속

연이은 해킹 사태와 일회성 비용 지출로 통신3사의3분기 실적이 직격탄을 맞았다. SKT, KT, LG유플러스 3사의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7483억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1조2434억원 대비 39.8%나 급감했다. 2021년부터 이어지던 분기 합산 영업이익 1조원 행진도 멈춰 섰다.

9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 결과, 통신 3사가 모두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실적에서 해킹 리스크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SK텔레콤이다. 3분기 영업이익이 484억원에 그치며 전년 동기 대비 90.9% 폭락했다. 특히 별도 기준으로는 522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 창사 이래 첫 ‘분기 적자 전환’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유심 해킹 사고 수습 비용이 3분기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5000억원대 고객 보상안과 역대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이 실적에 치명타가 됐다.

SK텔레콤의 위기는 무선 시장의 지각변동으로 이어졌다. 해킹 사태 이후 정부의 위약금 면제 조치 등이 시행되자 가입자 대거 이동이 발생했다. 그 결과 SK텔레콤의 3분기 무선 서비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5% 급감한 2조124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9월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드러난 KT의 경우 3분기 실적에 해당 사안이 미반영되면서 오히려 SKT 해킹 사태



이동통신사 3사 로고.

/뉴스시스

에 따른 반사이익을 거뒀다. 구체적인 해킹 내역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LG유플러스 또한 해킹의 그늘을 피했다.

KT는 3분기 매출 7조1267억원에 순이익 4453억원을 거둬 각각 7.1%, 16.2% 늘었다. LG유플러스는 매출 4조108억원에 순이익 491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5.5% 늘고 순이익은 63.6% 급감했다.

SKT 해킹 사태에 따른 반사이익은 무선 서비스 매출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KT의 무선 매출은 1조7336억원, LG유플러스는 1조6272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7%, 5.2% 성장했다. 이는 통상적인 연간 성장률을 분기 만에 달성한 이례적인 수치로, SK텔레콤 이탈 가입자를 흡수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두 기업도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KT는 3분기 강북본부 부지 개발 등 부동산 분양 이익 덕분에 전년 대비 16% 증가한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그러나 무단 소액결제 사태 등 3건의 해킹 사고 관련 비용은 4분기부터 본격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가KT에도 위

약금 면제를 검토하고 있어 SK텔레콤과 같은 가입자 이탈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크다.

LG유플러스는 3분기 영업이익이 1617억원으로 34.3% 감소했다. 약 15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희망퇴직 비용이 일회성으로 반영된 탓이다. LG유플러스는 이비용을 제외하면 실질적 이익은 성장했다고 설명했지만, 지난 7월 불거진 해킹 의심 사태가 경찰 수사로 이어진 점은 4분기 실적의 잠재적 변수로 남아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킹 사태의 여파는 단순히 이번 분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보상비용, 과징금, 위약금 면제 등 직접적인 비용뿐 아니라 브랜드 신뢰 하락, 가입자 이탈, 보안 시스템 재정비 등 간접적 손실이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3사 모두 정보보호 투자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라, 최소 반기 이상 실적 부담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AI 기반 ‘다크패턴’ 규제 시급

공정위, 소비자 보호지침 손질
‘AI 챗봇 상호작용’ 新유형 등장
악성코드·허위상품 등 2차 피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을 개정하며 다크패턴(이용자가 쉽게 속도록 눈속임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의도하지 않은 소비를 유도하는 설계 방식)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에 나섰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눈속임 상술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I 챗봇이 사용자와의 감정적 연결을 강화해 이용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AI 기반 다크패턴’에 대한 통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 제시를 골자로 소비자 보호 지침을 손질해 같은달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AI 알고리즘이 개입된 사용자 경험(UX) 설계, 특히 추천·광고·대화형 인터페이스에서 나타나는 ‘AI 기반 다크패턴’에는 여전히 규제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다. 최근 등장한 AI 챗봇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다크패턴이 대표적인 예다. 과도한 칭찬이나 감정적 공감을 반복하며 유지와 친밀감을 높이는 AI의 행위는 언뜻 봐서는 ‘친절한 서비스’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을 이용해 상호작용을 길게 유지하도록 설계된 AI는 사용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 불필요한 결제나 구독을 유도하기도 한다.

요즘 광고에서 쉽게 접하는 생성형 AI 콘텐츠도 온라인 눈속임 상술에 자주 활용되고 있다. AI 도구로 제작한 이미지나 영상 광고는 외관상 진짜 사람이나 제품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AI 생성물이라는 사실이 명시되지 않는다. 이용자는 이를 실제로 오인해 링크로 들어가 제품을 구매하고, 이 과정에서 악성 코드에 감염되거나 허위 상품을 결제하는 등 2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AI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다크패턴 확산에 우려하는 소비자 이미지.

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전장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 이사장은 “이제 AI가 ‘말’을 통해 사람과 더 많은 소통을 하게 되면서 AI 기반 다크패턴을 통한 소비자 기만 문제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공정위의 이번 지침에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아 규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공정위가 정기결제 증액·유료전환 시 별도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지침도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소비자에게 받아야 하는 명시적 동의의 범위에 AI 알고리즘이 정기결제 증액, 유료전환 등의 의사결정을 자동으로 할 수 있음에 대한 동의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예컨대 구독 서비스에서 AI가 사용자의 이용 패턴을 분석해 자동으로 정기결제 금액을 올리거나 무료 기간 종료 후 알림 없이 유료로 전환시키는 경우와 같은 AI 기반 자동 조정에 대해서도 사전에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온라인 눈속임 행위를 초장에 뿌리 뽑는 규제가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은 다크패턴 설계 자체를 금지하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기만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전면 금지’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한국은 유형별로 금지 행위를 나열한 ‘해석 중심 모델’에 머물러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다크패턴까지 포괄적 대응이 어려운 구조다.

/김현정 기자 hjk1@

KT-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AI체험 교육

KT는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연천·여주·안성 지역 중학교 6곳에서 ‘KT AI 스테이션’을 활용한 찾아가는 인공지능(AI) 체험 교육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KT AI 스테이션’은 이동형 AI 체험 학습 공간으로, K-인텔리전스 기술과 ESG 체형 콘텐츠를 결합한 교육 플랫폼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6개 중학교의 학생·교직원 45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AI 스타디움’, ‘AI 스튜디오’ 등에서 음성인식·영상합성·생성형 AI 등 최신 기술을 체험했으며, 디지털 윤리와 정보 판별 역량을 배우는 교육도 병행했다.

KT와 경기도교육청은 안성 양성중학교에서 이번 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간 AI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AI 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흥미를 느끼고 사고력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청소년·청년이 말한 ‘AI 시대의 과제’

과기정통부, AI 이슈 토론
연구성과 공유 자리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서울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 AI·디지털 네이티브 토론회’ 및 논문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 전환 시대를 맞아 청소년과 청년 세대가 인공지능 관련 주요 이슈를 주제로 토론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상식에 앞서 열린 ‘AI·디지털 네이티브 토론회’ 결성전에는 예선을 통과한 중·고·대학부 참가자들이 ‘AI와 일자리 변화’, ‘AI 알고리즘의 편향성’, ‘AI 환각’ 등을 주제로 열린 토론을 펼쳤다. 중등부 ‘기제로’, 고등부 ‘투명버블’, 대학부 ‘한토막’ 팀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준우승은 중등부 ‘청산유수’, 고등부 ‘모나드’, 대학부 ‘공감’ 팀이 받았다.

논문공모전에는 총 41편이 접수됐다. 최우수상은 레딩대 신교준 학생의



8일 서울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에서 열린 ‘2025 AI·디지털 네이티브 토론회 및 논문공모전 시상식’ 현장 사진.

/과기정통부

‘생성형 인공지능의 편향·환각,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RCT 기반 AI 신뢰성 검증과 포용형 거버넌스·정책 제안’이 선정됐다. 신 학생은 발표를 통해 대규모 언어모델의 신뢰성 검증과 AI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우수상은 고려대 김관희, 한국항공대 김민기, 연세대 김석환 학생의 ‘AI 기술 충격이 가져오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차의과대 이은주 학생의 ‘AI 시대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학습데이터 관리 제도와 방안’이 수상했다.

/김서현 기자

LG U+, 주요 파트너사와 성장비전 공유

‘기업 부문 파트너 컨벤션’ 열어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주요 기업 대리점 파트너사와 함께 성장 비전을 공유하고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2025 기업부문 파트너 컨벤션’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일 서울 송파구 시그니텔서울에서 열렸으며, 전국 주요 파트너사 대표 70여 명과 LG유플러스 임직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우수 영업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강연·시상식·만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강에는 삼진어묵 박용준 대표가 연사로 참여해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도전과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성장은 끊임없는 실험과 실행에서 비롯된다”며 “고객의 변화를

시상식에서는 연평균 30% 매출 성장을 이룬 ㈜비플이 ‘기업파트너 대상’을, 교육시장 고객 확보에 기여한 ㈜온파워네트웍스가 ‘최우수상’을 각각 받았다. LG유플러스는 수상자에게 상징적 의미의 ‘마스터스 재킷’을 증정했다.

이와 함께 차량 관계 DX(디지털 전환) 솔루션 ‘U+커넥트’ 수주에 성공한 ㈜드레니, 기업용 통화 솔루션 ‘AI비즈콜 by 익시(ixi)’의 신규 고객을 확보한 ㈜비엔에프가 영업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컨벤션을 계기로 파트너사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를 ‘동반성장 가속화의 원년’으로 삼아 영업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 AI 기반 영업 도구 도입, 파트너 역량 강화 교육 등 상생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부동산 만으로 부족… ‘현금흐름’이 진짜 부자 만든다”



인터뷰 | 김 화 중 미래에셋증권 PWM 부문대표(상무)

김화중 미래에셋증권 PWM 부문대표(상무)는 “부의 크기가 아니라 흐름이 중요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거주용 집 한 채는 필요하지만, 그 이상은 상징성에 가까운 트로피 자산”이라며 “눈에 보이는 규모보다 꾸준히 돌고 쌓이는 현금흐름이 진짜 부를 만든다”고 말했다.

리서치·운용·WM을 두루 거친 김 대표는 단기 수익률 경쟁보다 장기적인 ‘설계’에 방점을 찍는다.

김 대표는 “투자자는 결국 인생 설계의 일부”라며 “고객의 시간, 가족, 세금, 그리고 노후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그려야 한다. PWM은 그 설계를 돕는 플랫폼 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주는 1채, 투자자산은 글로벌로

김 대표는 고객들에게 “부동산을 팔라”가 아니라 “부동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는 “고가 주택은 세금과 유지비, 환금성을 고려하면 인컴 자산으로서 효율이 떨어진다”며 “자산은 배당과 이자처럼 눈에 보이는 현금흐름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외 자산의 절반 이상은 글로벌 현금흐름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며 “우량 글로벌 배당 ETF, 인컴펀드, 달러표시 채권을 축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거주용 집 한채, 그 이상 ‘트로피 자산’ 투자는 결국 인생설계의 일부 PWM, 그 설계 돕는 플랫폼 이어야 평범한 직장인의 IRP·DC 합계가 10억~20억돼야 韓경제 내구성 생겨 돈 ‘도구’ 일뿐, ‘설계’ 삶의 질 바뀌

김 대표는 투자 본질을 ‘혁신에 대한 베팅’으로 정의했다. 그는 “국내 비중 80%의 포트폴리오로는 세계 성장을 따라가기 어렵다”며 “AI, 헬스케어, 친환경 에너지 같은 구조적 성장 산업에 꾸준히 노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도, 동남아, 중남미 등 신흥국 시장은 개별 종목보다 ETF를 통한 분산 접근이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ETF 투자를 강조하는 이유도 ‘시장에 머무르게 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개별 종목은 한순간에 탈락할 수 있지만, 섹터나 시장 ETF는 변동성을 견디게 해준다”며 “투자자는 타이밍을 맞추려 하기보다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시장을 예측하기보다 구조를



김화중 PWM 부문대표가 메트로경제와 인터뷰 중인 모습.

/미래에셋증권

만들어야 한다”며 “주식 70, 채권·대체 30의 기본축을 지키고, 하락기에는 비중을 늘려 평균단가를 낮추며 상승기에는 이익을 실현하고 다시 원 비중으로 조정하는 것이 장기 성과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원칙은 단순한 투자법이 아니라 ‘흐름을 설계하는 시스템’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상품이 아니라 설계… ‘코인베스트’가 만든 신뢰의 구조

그는 세대별 자산 설계 또한 명확한 기준으로 구분했다. 그는 “2030 세대는 인플레이션 시대의 자산을 배우는 중이고, 5060 세대는 노후 현금흐름을 설계해야 한다. 같은 자산이라도 목적이 다르면 배치가 달라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초고액자산가라 하더라도 연금은 부차적 자산이 아니다”며 “성과급 DC나 IRP를 적극 운용해 장기 복리를 체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평범한 직장인이 IRP·DC 합계 10억~20억 원을 만드는 시대가 와야 한국 경제의 내구성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결국 김 대표가 말하는 PWM의 궁극적 역할은 상품 판매가 아니라 ‘인생 설계’다.

그는 “고객은 돈을 맡기러 오는 게 아니라 인생을 설계할 파트너를 찾는다. 자녀 교육, 거주지 이전, 승계, 세금 구조가 모두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 PWM은 이를 위해 법무·세무·회계 전문가와 협업해 다국적 거주 고객의 거버넌스 설계, 글로벌 세제·상속자

문, 해외 법인 자산 이전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설계 중심 철학’은 회사의 투자 방식에도 반영된다.

김 대표는 “미래에셋이 먼저 투자하고 고객이 함께하는 구조를 지향한다”며 “회사가 직접 검증해 자기자본으로 참여한 뒤 그 기회를 고객에게도 공유하는 코인베스트(co-invest) 모델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페이스 X 같은 글로벌 비상장 성장 기업이나 최근 AI 유니콘 투자가 그 사례”라며 “회사가 실사와 법률 검토를 마친 뒤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신뢰를 쌓는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 철학을 ‘한국을 생각하는 PWM’으로 확장했다. 그는 “한국의 부자들이 글로벌에서 더 크게 벌어야 한국이 어려울 때 민간 자본이 마중물이 된다. 부를 국내 부동산에만 묶어두면 위기 때 함께 잠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적을 바꾸지 않아도 글로벌 투자는 가능하다”며 “한국 자산이 과매도일 때 국내 플레이어가 주도하려면 평소에 해외에서 돌아오는 현금흐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를 마치며 김 대표는 “돈은 ‘도구’일 뿐이고, 도구로 만든 ‘설계’가 삶의 질을 바꾼다”며 “미래에셋 PWM은 고객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함께 투자한다. 그 철학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임직원 미공개 정보 이용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NH투자증권, 신뢰 강화 대책방안
윤병운 사장 팀장으로 TFT 구성

NH투자증권이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공개중요정보 취급 임직원 등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사전 점검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정보관리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NH투자증권은 최근 윤병운 사장을 팀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T)를 구성, 내부통제 전반을 손보는 ‘신뢰 강화 대책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핵심은 사전 감시체계의 효율화다. 우선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을 전사적으로 등록·인증해 관리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취급 임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사옥 모습. /뉴시스

직원 등록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 본부 단위 중심의 통제 구조를 프로젝트별 관리 체계로 바꾸어 정보 접근과 이동 경로의 추적 가능성을 높였다. 공개매수, 유상증자, 블록딜 등 국내 상장주식 관련 IB 프로젝트 수행 임직원이 주요 대상이다.

자금세탁방지(AML) 기술을 활용한

점검 체계도 새로 도입된다. 내부통제 대상 프로젝트 관련 임직원의 당사 계좌뿐 아니라 타사 계좌,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등 가족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상거래까지 점검한다. 우회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 적발이 아닌 ‘선제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강화했다.

미공개정보 이용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기로 했다. 중요정보를 취득·이용·제공·유출할 경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까지 이어지도록 했다. 회사는 이를 통해 전 임직원의 경각심을 높이고, 윤리경영을 실질적으로 내재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지난 6일 시행된 전체 임원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매수 금지 대

상은 국내 상장주식으로, 해외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등은 매수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주식의 매도도 가능하다. 경영진과 주요 의사 결정자의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회사의 법적 평판 리스크를 예방하자는 취지라고 NH투자증권은 설명했다.

회사는 또한 익명성이 보장된 내부 제보 제도를 활성화해 제보자의 신분 노출 우려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신뢰 강화 대책은 선언이 아닌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실질적 혁신”이라며 “정보관리 투명성과 내부통제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해 금융투자업계의 신뢰 기준을 새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신한자산운용 ‘SOL 코리아 고배당’ 개인투자 800억 돌파

신한자산운용은 지난 9월 상장한 ‘SOL 코리아고배당 ETF’의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가 835억원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기간 국내 배당 ETF 중 가장 많은 개인투자자 자금이 몰렸다. 이에 따라 상장 당시 100억원 규모였던 순자산은 약 한 달 만에 10배 증가해 1000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상장 첫날이었던 9월 23일에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 금액 215억원이 몰렸으며, 거래 개시와 동시에 상장 물량이 조기 소진됐다. 상장 이후 약 한 달간 개인 순매수 규모는 국내 배당 ETF 31종 중 1위로 이는 최근 고배당·질세형 상품에 대한 투자자 선호가 집중되는 모습이다.

SOL 코리아고배당 ETF는 단순히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담은 기존 고배당 ETF와 달리, 배당소득 분리과세, 감액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정책 등 주주환원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형 고배당 ETF다. 특히 감액배당 실시 기업의 배당은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혜택을 통해 실제 분배금 수령액 증가가 기대되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SOL 코리아고배당 ETF는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KB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사와 함께 ▲현대차 ▲기아 ▲KT&G 등의 대표 고배당주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보험업종으로 구성된다.

/신하은 기자 godhe@

사상최대 빚투 속 하락장 ‘반대매매 최대’

금투협, 반대매매 규모 219억 집계
주가 더 하락할 투자자 손실 우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다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주식을 강제 매각당하는 반대매매 규모가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빚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 융자 규모가 사상 최대 규

모(26조원)로 늘어난 상황에서 주가가 지금보다 더 하락할 경우 반대매매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규모는 219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최고치로, 직전 최고 금액인 지난

9월 29일 197억원 대비 22억원 많다.

반대매매는 개인이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산 후에 주가가 급락하거나 약속한 만기 내에 갚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사는 투자자가 외상으로 주식을 산 후에 3거래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주식을 강제로 처분해 버린다.

이달 들어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평균 약 149억원이다.

지난달 평균 75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1월 들어 조금씩 그 규모가 급증한 셈이다. .

이같이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이 많이 늘어난 배경에는 이달 들어 코스피가 크게 내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스피는 지난 3일 종가 기준으로 4200선을 뚫으며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이후 4000선 아래로 떨어지며 주저앉으면서 반대매매 물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허정윤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충남 홍성의 한 마을에서 가동 중인 '돼지분뇨 활용 바이오 가스 발전시설'을 찾아 관계자 설명을 듣고 있다. /농식품부

“가축분뇨 활용 재생에너지 생산 지속가능 농촌·탄소감축 기대”

송미령 장관 충남 ‘원천마을’서
돼지분뇨 활용 마을발전소 시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축 분뇨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이 지속 가능한 농촌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국가 탄소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지원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9일 충남 홍성군 결성면 소재 ‘원천마을’을 찾아 돼지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전력발전시설 및 마을발전소(육상 태양광)를 둘러보고 현장에서 지역 주민·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농촌 내 가축분뇨, 유허부지 등 활용되지 않던 자원들이 마을 공동체의 노력을 통해 높은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니 농촌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희망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또 “기후 변화가 화두가 되는 요즘, 재생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생산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는 전력을 판매하여 수익을 공유한다고 들었는데, 향후 당초 목표인 ‘에너지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천마을은 2014년부터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 곳이다. 지난 2021년 바이오가스 시설(430kWh 규모)을 설치한 데 이어 올해 12월 마을 태양광을 설치(495kWh 규모)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협, 우리 과채류 매력 알리기 콘텐츠 공모전

‘일상을 다채롭게…’ 배유미 씨 대상 수상

농협경제지주가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25 우리 농산물 과채류 매력 알리기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9일 농협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행사에서는 배유미 씨의 ‘일상을 다채롭게, 우리 농산물’이 대상을 수상했다. 일러스트를 활용해 제작한 영상으로, 국산 과채류의 생동감과 가치를 선명하게 표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최우수상(농협중앙회장상), 우수상(농업경제대표이사상) 3점, 장려상 6점 등 총 33점의 작품이 수상의 영예

를 안았다.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많은 분들이 우리 과채류의 다채로운 매력과 가치를 느낄 수 있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산 과채류의 소비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 국산 과채 농산물 10개 품목의 매력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생활 속 소비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농산물 과채류 매력 알리기 콘텐츠 공모전’을 매년 개최해 왔다.

/세종=김연세 기자

해수부, 해양기후 대응 국제협력 나선다

해수부 “해양이 기후위기 해법”
COP30서 글로벌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여해 해양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녹색해운, 블루카본,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온실가스 국제 감축 등 4가지 분야와 관련된 부대행사를 개최한다.

우선 현지 시간으로 오는 10일 블루카본 연구 및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전

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해수부는 세미나에서 신규 블루카본 인증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연구 성과를 소개할 계획이다. 11일에는 녹색해운항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녹색해운항로 구축 추진 현황과 친환경 선박·대체연료 관련 연구 등 해운 탈탄소화를 위한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대양 기후변화 관측(11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12일)을 주제로 한 부대행사도 진행해 해수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제4차 유엔 해양총회(UN Ocean Conference) 유치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뷰티·푸드, 뉴욕서 통했다 한류博 1000만 달러 수출 계약

북미 첫 한류박람회 성황
중소기업 해외진출 교두보
K-소비재 브랜드 확산 가속
라면·화장품 수출 증가세

이달 상순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류 박람회에 국내외 기업 300여 곳이 참가해 K-푸드와 K-뷰티 등을 선보였다. 이 중 100여 개 한국 기업은 북미 및 남미에서 방문한 바이어 235개사와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등 큰 성과를 냈다.

현장에서만 도합 1000만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업무협약이 맺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한류박람회가 북미 지역에서 개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지난 6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뉴욕시 인근의 뉴저지주 아메리칸 드림몰에서 ‘2025 뉴욕 한류박람회(KBEE 2025 NEW YORK)’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행사는 현지에서 확산되는 한류 열기를 활용해 국내 유망 소비재·서비스의 해외시장 진출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지원하는 행사로 올해로 25회째 개최되는 박람회다.

올해엔 K-컬처와 소비재의 연계를 통해 K-소비재의 외연을 확장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현지 소비자·바이어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뉴욕 한류박람회에는 국내외 335개 기업이 참가했고 방문객 약 2만 명이 찾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는 평가를 받



배우 하지원 씨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아메리칸드림몰에서 열린 ‘2025 뉴욕한류박람회’에서 홍보대사 자격으로 K-뷰티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뉴시스

는다. K-뷰티와 푸드, 패션 등 프리미엄 소비재 전문 100여 곳으로 구성된 한국 기업들은 북미·중·남미 바이어 235개사와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현장 수출계약만 11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이번 박람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K-푸드·K-뷰티·K-굿즈 등 다양한 소비재와 콘텐츠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했다. 또 유통망 입점 및 판매 확대를 위해 현지 주요 유통망과 협업하는 등 이른바 ‘O2O(온·오프라인 연계) 기반 쇼케이스(공개)’도 병행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K-콘텐츠 인기가 급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미국 내 K-뷰티 제품 수입 점유율이 1위를 기록하는 등 K-소비재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또 K-푸드는 라면·김 등을 중심으로 대미 수출이 최근 10년간 연평균 10% 증가하며 현지 시장에 빠른 속도로 자리잡고 있다.

뉴욕박람회 개막식에는 이상호 주뉴욕대한국총영사대리,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한류 홍보대사 하지원·태민·화사 등의 축하 무대도 이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북미에서 추진한 K-컬처 연계 수출 전략이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을 넓히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뉴욕 한류박람회와 함께 말레이시아 한류박람회 등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K-소비재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Kotra는 다음 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류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K-소비재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의 일환이다. 올해 상반기에 캄보디아, 카자흐스탄에서 각각 한류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韓-호주, 인도·태평양 개도국 공급망 역량강화 지원

공급망 강화 ‘임팩트 프로젝트’
맞춤형 현지 교육 프로그램 제공

산업통상부는 호주 정부와 협력해, 인도·태평양 지역 개도국의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임팩트(IMPACT)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우리나라(산업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위기대응 네트워크 의장국이다. 지난 10월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성공적으로 주관한 데 이어, 작년 6월부터 호주 정부와 함께 준비해 온 IMPACT 프로젝트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공급망 협력을 확대

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호주 양국은 IPEF 협상 과정에서 개도국 공급망 역량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을 확보한 후, 역내 공급망 위기 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IMPACT 프로젝트는 국가별 ▲사전 공급망 역량진단 ▲현지 교육훈련 ▲성과 평가 및 후속 조치 등 3단계로 진행된다. 특히, 현지에서는 한·호 공동으로 개발한 교재를 기초로 회원국의 관심 사항을 반영해 ▲핵심 공급망 식별 ▲데이터 기반 관리 ▲거버넌스 구축 ▲교란

대응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실무형 교육이 이루어진다.

산업부는 이번 인도네시아, 태국을 시작으로 12월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내년까지 총 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각국의 공급망 관리 및 위기 대응 능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위기대응 네트워크 모의훈련을 통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회원국 간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한 데 이어, 이번 IMPACT 프로젝트는 개도국의 실무 역량을 높여 역내 공급망 안정을 한층 강화하는 실질적 후속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공사대금·지연이자 미지급, 파인건설 제재

파인건설이 하청업체에 알무미늄 합금 창호 공사를 맡기면서 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9일 파인건설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지난

2022년 6월 22일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무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했다.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억 중 1억396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지나 대금을 건네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4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금 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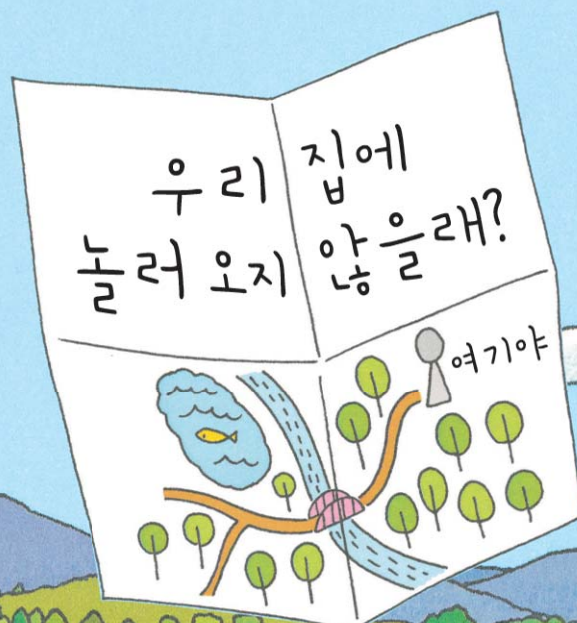
20개월 이상 관람가

더 강력하게 돌아왔다! 20만 관객 증명!
기발한 상상력의 이머시브 뮤지컬

뮤지컬

100

총짜리 집



©Toshio IWAI/ KAISEI-SHA

2026.01.09(금) ~ 03.02(월)
성균관대학교 새천년홀 대극장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 동해안권 균형성장 본격화

포항~영덕 운행거리, 6km 단축
국도 7호선 교통량 분산효과 기대
주요 관광지 등 고속도로망 연결

경북도는 포항시 흥해읍 곡강리에 서 영덕군 강구면 상직리를 잇는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2016년 착공 이후 9년 만에 개통됨에 따라 동해안권 균형성장의 새로운 축이 열리고, 본격적인 동해안 고속도로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식은 지난 7일 오후 2시 포항휴게소에서 열렸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이강덕 포항시장, 김광영 영덕군수, 경북도의회 부의장 및 지역 도의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개통을 축하했다. 정식 개통은 8일 오전 10시부터 이루어 졌다..

이번에 개통한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총연장 30.92km, 왕복 4차로로 조성됐으며, 총사업비 1조 6000억원이 전액 국비로 투입됐다. 구간 내에는 터널 14개소와 교량 37개소, 분기점 1개소(영덕), 나들목 3개소(영일만·북포항·



지난 7일 포항휴게소에서 열린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식’.

/경북도

남영덕)가 설치됐고, 편의시설로는 포항~영덕 휴게소와 졸음쉼터 4개소가 마련됐다.

경북도는 이번 개통으로 포항과 영덕 간 운행거리가 기존 37km에서 31km로 6km 단축되고, 주행시간은 42분에서 19분으로 23분 줄어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상습 정체로 불편을 겪던 국도 7호선의 교통량 분산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동해안 주요 관광지인 강구항, 장사해수욕장, 영일대해수욕장과 포항·영일만항·블루밸리 국가산단 등 산업·물류 거점이 고속도로망으로 연

결되면서 동해안권 물류와 산업, 관광 활성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통으로 국가 간선도로망 남북10축(부산~포항~고성, 433km) 중미연결 구간은 영일만 횡단(18km), 영덕~삼척(117.9km), 속초~고성(43.5km)만 남게 됐다.

특히 국가 계획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영덕~삼척 구간에 대해 경북도는 연말 고시 예정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되도록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적극 건의 중이다.

또 경북도는 이번 개통에 맞춰 국도7호선(청하교차로)에서 북포항나들목까지 국가지원지방도 20호선 700m 구간

을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 개통했다. 이는 ‘상원~청하 간 도로건설공사’의 일부 구간으로, 애초 2029년 개통 예정이었으나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조기 개통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은 동해안권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라며 “포항과 영덕 등 해양관광 축을 하나로 연결해 관광권 확장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해안 고속도로의 마지막 퍼즐인 영덕~삼척, 영일만 횡단구간도 조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전남도, 어촌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어촌신활력증진사업 9개소 선정
국비 629억… 각 최대 100억 투입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의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전국 34개소 중 9개소가 선정돼 898억원(국비 62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선정 규모의 약 26%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남도의 해양정책 추진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성과다.

선정 사업지는 여수 두포항, 순천 대대항, 고흥 남열항, 강진 수인항, 해남 학기항, 무안 도원항, 영광 월곡항, 완도 금일관문권역, 신안 상대도항 등 총 9개소다.

각 지역에는 최대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어촌의 열악한 생활·안전 인프라와 생활서비스 확충을 통해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남에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35개소가 해당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3241억원을 유치했다. 이번 9개소를 포함,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도가 매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는 사업계획 수립 초기부터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 수요에 맞춘 전략을 펼친 때문이란 분석이다.

박영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선정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나후된 어촌의 생활·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열악한 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전남 어촌지역 활력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부산시, ‘공원녹지법’ 개정 기념 시민행사

낙동강 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 노력

부산시는 지난 8일 오후 3시 을숙도 문화회관 잔디광장에서 공원녹지법 개정을 기념하는 시민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낙동강 하구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앞두고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이성권 국회의원, 이갑준 사하구청장, 채창섭 사하구의회 의장, 전원석 시의원을 비롯해 범시민추진본부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법령 개정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국가도시공원 정책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뜻을 모았다.

부산시는 그동안 낙동강 하구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국회에 법령 개정을 요청해 왔으며 지난 8월 26일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실을 맺었다.

내년 8월 법령이 시행되면 지정 기준 면적이 기존 300만㎡에서 100만㎡로 대폭 낮아지고, 지정 절차도 국무회의 심의에서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로 바뀌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을숙도는 예전에 쓰레기 매립장과 분뇨 처리장이었으나, 2000년대 생태계 복원 사업을 거쳐 지금은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로 변모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대구시, 내년 예산안 11조7078억 편성

올해보다 7831억 늘어

대구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7831억원(7.2%) 증가한 11조707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대구시예산안은 지방세 감소와 경직성 경비 급증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투자사업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민생안정 및 복지·미래 성장동력·시민 안전 등 3대 핵심 분야에 가용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내년에는 공동주택 입주 물량 감소로 지방세 항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올해보다 11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체 지방세 수입도 올해 대비 410억원 줄어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복지·교통·교육 등 경직성 경비는 급증해 내년도 전체 예산의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재정 자율성과 운용 여력이 크게 제약받는 구조적 어려움이 이어지자 도로 건설 등 일부 사업 추진 시기 조정,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저성과 사업 비용 감액 또는 폐지, 업무추진비 등 공공부문 경비 절감 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포항시, ‘수산업 발전 교류화합대회’ 성료

어업인 활력, 수산업 미래방향 모색

포항시는 지난 7일 구룡포 아라광장에서 ‘2025 수산업 발전 교류화합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희망의 100년 항해!’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수산업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어업인과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여했으며, 개회식과 유공자 포상, 어업인 기(氣) 살리기 퍼포먼스, 마을 장기자랑,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

특히 수십 년간 바다를 지켜온 원로해녀, 선장, 선원 등 18명이 수산업 발



지난 7일 구룡포 아라광장에서 열린 ‘2025 수산업 발전 교류화합대회’. /포항시

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고, 프로야구 선수 시절의 열정과 투지를 지역 어업 상생 활동으로 이어온 야구선수 양준혁이 특별상을 수상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국립수산물학원 권유정 연구관이 ‘동해안 어업 환경 변화 및 미래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지역 수산업의 발전 전략을 함께 논의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지역 이모저모

영양군

농업 근로자 기숙사 준공식

영양군은 지난 7일 입암면 신구리에서 영양군 농업 근로자 기숙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도창 영양군수를 비롯한 김영범 영양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 운영기관인 남영양농협조합장 및 지역 농업 관련 단체장, 신구리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준공된 농업 근로자 기숙사는 연면적 1396㎡, 지상 3층 규모로 총 18호실에 65명이 생활할 수 있다. 또한 공용사위실 및 세탁실, 공동주방, 다목적실 등 근로 편의시설을 갖췄으며, 총사업비 50억원이 투입됐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청송군

지역 미혼청년 만남·교류 행사

청송군은 오는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지역 미혼 청년들의 만남과 교류를 위한 행사 ‘인연정원’을 청송군 일원에서 개최한다.

사과 쿠키부터 주산지 데이트까지, 자연과 예술 속에서 소통과 교류가 어우러지는 이색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청송의 문화자원을 배경으로, 청춘 남녀들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장으로 기획됐다. 지역 내 결혼 적령기 청년층의 만남 기회를 넓히고, 청송의 정주 여건을 보다 긍정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도 담겨 있다.

/청송(경북)=송기섭 기자 gbnews8082@

경남도교육청

오늘부터 수능 종합상황실 가동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10일부터 수능 종합상황실을 가동하며 본격적인 시험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10일 오후 1시 강당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도내 7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도 상황실을 구축해 시험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시험장 설치부터 교통 관리까지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수험생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관공서와 공공기관, 50인 이상 사업체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해 달라는 협조도 요청했다.

/경남=이도식 기자

사천시

‘조훈현-이창호’ 바둑대결

사천시는 ‘2025 사천방문의 해’를 기념해 한국 바둑계의 전설인 조훈현 9단과 이창호 9단의 스페셜 매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기원이 주관하는 이번 대국은 오는 16~17일 이틀간 진행된다.

16일 오후 4시에는 사천시립도서관 대강당에서 미디어 데이와 팬사인회가 열린다. 17일에는 항공우주체험관에서 단판 승부 형식의 스페셜 매치가 비공개로 활용되며 바둑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11월 중 방송된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저렴 한끼서 ‘간편미식’으로… ‘프리미엄 라면’ 전성시대

삼양식품 신제품 ‘삼양1963’
우지·팜유에, 동결건조 후레이크

하림 ‘더미식 장인라면’
사골·소고기·닭고기 우려낸 육수

농심 ‘신라면 블랙’으로 고급화
‘툼바’ 닛케이 트렌디 히트상품



삼양1963이 생산되는 모습.

/삼양라운지스퀘어

라면이 더 이상 ‘저렴한 한 끼’로만 소비되지 않는다. 국내 라면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주요 업체들이 잇따라 프리미엄 전략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단순한 간편식이 아닌 ‘간편미식’을 표방하며 맛과 품질, 브랜드 철학으로 승부를 거는 흐름이 뚜렷하다.

최근 삼양식품이 신제품 ‘삼양1963’을 공개하며 프리미엄 시장에 본격 진입한 것은 이같은 변화의 상징적인 사례다.

국내 최초 라면 ‘삼양라면’의 레시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 제품은 36년 만에 우지(牛脂)를 다시 사용하며 ‘정직과 진심의 복원’이라는 메시지를 내걸었다. 삼양식품은 우지와 팜유를 황금비율로 섞은 ‘골든블랜드 오일’로 면을 튀겨 깊은 풍미를 구현했고, 고급 재료와 동결건조 후레이크를 적용해 가격대 또한 기존 제품 대비 1.5배 이상 높게 책정했다.

라면업계가 ‘비싼 라면’이라는 눈총을 받으면서 프리미엄 제품을 선보이는 이유는 성장 여력이 정체된 라면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마지막 성장판으

로 꼽히기 때문이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라면 시장 규모는 3조원대지만, 상위 브랜드 간 점유율은 매년 1% 안팎의 미세한 변동만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프리미엄 제품은 기업들이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영역이다.

특히, ‘가격보다 만족감’을 중시하는 2030세대가 새로운 소비 주체로 떠오르며 프리미엄 라면 시장의 확대를 이끌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500원 이상 라면의 성장세가 시장 평균을 웃돈다”며 “또 먹던 라면만 고집하는 고정 소비 구

조 속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업계 전반에 깔려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흐름을 가능성으로 바꾼 대표 사례가 하림의 ‘더미식 장인라면’이다.

하림은 사골·소고기·닭고기 등 신선한 재료를 20시간 이상 우려낸 진한 육수와 고급 원료를 내세워 ‘한 끼 식사 같은 라면’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했다.

하림 더미식에 따르면 최근 시장조사기업 엠브레인을 통해 실시한 소비자 이용행태 조사에서 ‘더미식 장인라

면’은 국물라면 주요 제품군을 대상으로 한 6개 주요 평가 항목 가운데 구입 의향부문에서 7위를 기록했으며, 선호도·구매경험·주 구입 등 다른 부문에서도 10위 내외의 순위를 보이며 안정적인 입지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인라면 제조과정 영상 시청한 뒤에는 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가 높아지며, 구입 의향이 평균 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미엄 라면 경쟁은 이제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농심은 일찍이 ‘신라면 블랙’을 시작으로 고급화 흐름을 주도해 왔으며, 최근 ‘신라면 툼바’로 일본 시장에서 ‘2025 닛케이 트렌디 히트상품’에 이름을 올리며 글로벌 무대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삼양식품까지 가세하면서 국내 프리미엄 라면 시장은 새로운 경쟁 구도에 돌입했다.

물론 ‘고가 논란’은 여전히 존재한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라면 한 개에 2000원’이라는 말은 소비자 반발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라면을 단순히 ‘싸고 간편한 음식’으로만 보지 않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라면이 이제 한국인의 대표적인 ‘소울푸드’를 넘어, 미식의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먼저 프리미엄 라면 문화가 정착하면 세계 시장에서도 한국식 미식 브랜드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퀴진케이 폭군의 셰프 팝업 현장을 방문한 고객들.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 ‘퀴진케이’ 드라마 ‘폭군의 셰프’ 스페셜 팝업 대성황

CJ제일제당의 차세대 한식 셰프 발굴·양성 프로젝트 ‘퀴진케이(Cuisine. K)’가 tvN 드라마 ‘폭군의 셰프’ 스페셜 팝업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9일 밝혔다. ‘폭군의 식탁, 연지영의 한상’ 팝업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서울 강남구 소재 퀴진케이 레스토랑에서 진행됐다.

이번 한정 팝업은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캐치테이블’ 앱에서 진행한 응모 이벤트로 무료 운영됐으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고객들에게만 팝업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벤트는 짧은 응모 기간에도 불구하고 1200:1이 넘는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으며, 소셜미디어(SNS)에서도 관련 게시물에 총 조회수 50만, 좋아요·댓글·공유 등의 상호작용 1만5000건 이상을 기록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드라마 속 ‘망운록’ 키링 굿즈를 증정하는 ‘퀴진케이’ 공식 인스타그램 댓글 이벤트에도 300명이 넘게 참여했다.

이번 팝업 레스토랑은 CJ제일제당이 드라마 ‘폭군의 셰프’ 제작사인 CJ ENM 스튜디오드래곤과 협업해 선보인 기간 한정 이벤트로, K-푸드와 K-콘텐츠가 결합한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신원선 기자

3분기 소비쿠폰 덕 본 편의점 증권가 4분기 전망은 엇갈려

GS리테일, 편의점 매출 6.1% 상승
증권사 4곳서 목표주가 상향조정
BGF리테일, 매출 5.9% ↑ 2.5조
증권사 3곳 목표주가 ‘유지’ 결정

GS25와 CU가 3분기 나란히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무분별한 출점 대신 질적 성장을 통해 영업이익이 상승하며 내실을 다진 결과다. 다만, 3분기 실적과 4분기의 전망은 양사가 엇갈린 평가를 받았다.

9일 금융감독원 실적 공시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올해 3분기 편의점 부문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1% 상승한 2조448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 2조4623억원을 기록하며 5.9%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올해 2분기까지 편의점 업계는 소비 침체와 업황 둔화로 인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GS리테일의 편의점 부문과 BGF리테일의 매출액은 각각 1.2%, 3.6%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GS리테일의 편의점 부문은 상반기 영업이익 76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6.5% 감소했고, BGF리테일은 수익성이 전년 동기 대비 15.4% 줄어들며 상반기 영업이익이 920억원에 그쳤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반면, 3분기에 접어들며 양사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GS리테일 편의점 부문은 영업이익이 16.7% 증가하며 851억원을 기록했고, BGF리테일은 영업이익 977억원을 기록하며 7.1% 늘어났다. 양사 모두 소비쿠폰 지급에 맞춰 대규모 민생 회복 프로젝션을 펼친 것이 집객과 객단가 상승을 동시에 이끌었다.

질적 성장으로 전환한 전략도 주요했다. GS리테일은 실적 개선을 위해 수익 중심 우량점으로 출점하는 데 나섰다.

다만, 증권가는 3분기 실적을 두고 양사에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GS리테일에 대해서는 4개 증권사(신한, 미래에셋, 한화, IBK)가 모두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한화투자증권은 “편의점 업계 재편 시기 일본의 주가 리레이팅 사례가 국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며 “10년 전 일본 편의점의 향기”라고 호평했다.

반면 BGF리테일에 대해서는 증권사 3곳(IBK, 한화, 신한)이 목표주가를 유지했다. IBK투자증권은 중대형 점포 비중이 높지 않은 상황을 아쉽다고 분석했다. BGF리테일은 신규 오픈 점포 중 40%를 중대형 점포로 목표했지만, 실제로는 20%대에 머무르고 있다.

SSG닷컴, 중소 파트너사 상품 프로모션

뉴팜 과일·연두팜 착즙주스 30% ↓

SSG닷컴이 국내 최대 쇼핑 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동참해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일주일간 중소 파트너사 상품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1만4000여곳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브랜드가 참여해 식품, 디지털가전, 리빙, 뷰티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뉴팜 과일, 연두팜 착즙주스 등을 최대 30% 할인한다. 스팀보

이 온수매트도 최저가 수준에 선보이며, 데시뉴 침구류는 최대 40% 할인한다. 이 밖에도 로젤 캐리어, 참존 스킨케어 제품 등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행사 기간 SSG닷컴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상품에 적용 가능한 10% 할인 쿠폰을 계정당 1매씩 선착순 발급한다.

SSG닷컴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상품 경쟁력을 알리고,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CU-배민, 9900원 ‘한입쭉쭉 핑거 치킨’

이달 말까지 2000원 할인쿠폰 제공

편의점 CU가 배달 플랫폼 1위 기업인 배달의민족과 손잡고 1만원 이하의 치킨 한마리 메뉴인 한입쭉쭉 핑거 치킨을 단독으로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한입쭉쭉 핑거 치킨은 600g의 넉넉한 중량으로 구성된 한마리 치킨 신메뉴다. 닭의 등갈비 부분 특수 부위인 치킨립을 사용해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식감을 구현했으며, 닭날개와 유사한 풍미를 구현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해 품질과 가성비를 모두 잡은 것이 특징이다. 튀김기에 약 3분만 조리하면 완성된다.

CU는 이번 협업 상품 출시를 기념해 이달 말일까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달 12일부터 자체 커머스앱 포켓CU와 배달의민족 앱에서 2000원 할인 쿠폰을 통해 해당 상품을 구매 가능하다. 포켓CU에서는 주문 금액 2만원 이상 상시 무료 배달하며,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기간 중 배민 장보기·쇼핑은 1만 5000원 이상이면 무료 배달 혜택이 적용된다.

/손종욱 기자

쿠팡 열흘간 ‘쿠팡세’ 진행 의류 등 2.4만종 특가

쿠팡이 하반기 결산 대규모 패션 할인전 쿠팡세(쿠팡패션세일)을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류, 속옷, 신발, 가방, 잡화 등 패션 전 카테고리의 인기 로켓배송 및 판매자로켓 상품 2만 4000여 종을 특가에 선보인다.

이번 쿠팡세에는 뉴에라, 자주, 로라로라, 블루독 등 5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대표적으로 ▲게스 기모와이드 팬츠 ▲컬럼비아 온니히트 통패딩 ▲커버넛 아치로고 하프zip업 맨투맨 ▲뉴발란스 237 운동화 ▲컨버스 척70 하이 스니커즈 ▲빔보밤바 아동용 어그부츠 등을 겨울 인기 아이템이 다수 포함됐다.

쿠팡은 행사 기간 동안 와우회원에게 골드박스 혜택을 제공한다. 매일 오전 7시, 하루 한 번 열리는 골드박스에서는 매일 6개 내외의 인기 상품을 한정 수량으로 선보인다.

/손종욱 기자

K-뷰티 제조기업, 국내 ‘탄탄’·해외 ‘확장’… 3분기 실적 잔치

한국콜마 누적 실적 두자릿수 성장
‘메이드 바이 콜마’ 전략 강화 방침

코스메카코리아

韓·美 법인, 분기 최대실적 달성

국내 대표 화장품 제조 기업들이 올해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며 K뷰티 성장세를 이어갔다. 한국콜마는 국내 대표 화장품 제조 기업으로 1위 위상을 높였고 코스메카코리아도 신흥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콜마는 올해 3분기 실적으로 6830억원의 매출과 58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9%, 영업이익은 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4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커졌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한 실적으로는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에서 두 자릿수의 성장세가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누적 매출은 11% 늘어 2조 670억원을 기록했다. 누적 영업이익 1918억원과 누적 당기순이익은 1074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각각 21%, 33% 증가했다.



한국콜마종합기술원 전경.

다만 국내법인과 미국법인에서 실적 희비가 엇갈렸다.

한국콜마 국내법인이 매출 3220억원, 영업이익 443억원, 영업이익률 14% 등 3분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특히 기존에 강점을 보여온 선크어는 물론, 스킨케어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번 분기 매출 비중은 스킨케어 49%, 선크어 28%, 메이크업 17% 등으로 이뤄졌다. 지난 2분기에도 스킨케어 43%, 선크어 33%, 메이크업 18% 등의 매출 구조가 집계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핵심 고객군에

서 다변화를 빠르게 이뤄냈다”며 “국내 최대 선크어 브랜드가 최대 고객사로 부상했고 유럽 스타일의 스킨케어 브랜드가 약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법인 매출은 81억원에 그치며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했다. 영업이익자는 64억원으로 적자폭을 키웠다. 미국 1공장과 2공장의 합산 영업이익자 30억원과 기술영업센터 비용 34억원이 포함됐다. 올해 7월부터 미국 현지 제조를 본격 시작한 2공장의 경우, 미국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고객 주문이 연가됐다.



코스메카코리아 회사 전경.

이에 따라 회사 측은 ‘메이드 바이 콜마’ 전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장 가동률 상승을 위한 영업 활동을 추진해 화장품 제조개발생산(ODM)뿐 아니라 OEM(위탁생산) 고객을 확보할 계획이다.

코스메카코리아는 올해 3분기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분기 최대 실적을 냈다.

코스메카코리아는 올해 3분기 실적으로 연결기준 매출 1824억원과 영업이익 272억원을 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4%, 79% 늘었다. 코스메카코리아 한국법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해 1298억원이다. 미국

법인 매출도 50% 증가한 618억원이다.

코스메카코리아는 국내외 인디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수주를 매출 성장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자체 개발한 신제품을 고객사에 적극 제안하는 등 브랜드 성장을 뒷받침하며 성과를 거뒀다.

미국법인의 경우, 미국 뉴저지와 한국 인천에서 생산 시설을 동시 운영하며 관세 정책과 공급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해 왔다. 코스메카코리아 측은 “최근 미국 현지에서 K뷰티 인디 브랜드를 비롯해 글로벌 인디 브랜드의 신규 수주가 지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코스메카코리아는 올해 다양한 해외 뷰티 전시회에서 파트너십을 확장했다. 지난 9월 미국에서 열린 ‘메이크업 인 뉴욕 2025’에서 화장품 제조 및 공급 업체로서 글로벌 브랜드와 활발하게 교류했고 앞서 5월 개최된 패키징 전문 전시회 ‘텍스팩 뉴욕 2025’에서는 친환경 소재를 선보이며 자사 제품력을 알렸다.

코스메카코리아 관계자는 “미국 내 생산 기반을 거점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고 현지 영업망을 확충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한미약품, ‘K-AI 신약’ 효율성·정확도 높인다

K-AI 신약개발 사업 연구기관 지정
역이행 연구설계 AI SW 개발 협력

한미약품은 보건복지부 ‘2025년도 K-인공지능(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 사업’ 신규 과제에 참여하는 공동 연구기관으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국내 병원, 제약 기업, 학계 등이 공동 참여하는 가운데, 한미약품은 삼성서울병원이 주관하는 ‘역이행 연구 설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협력한다.

사업 목표는 인공지능(AI) 신약개발 전반에서 전임상·임상데이터를 통합 분석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이다. 특히 임상 시험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전임상 단계로 환류하는 ‘역이행 연구 설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신약개발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미약품 연구센터 전경.

/한미약품

한미약품은 오랜 기간 항암, 대사질환 분야에서 신약을 개발하며 확보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새로운 전임상 멀티모달 데이터를 생산한다. 전임상 수준의 세포 실험 데이터, 동물 분석 모델, 유전자 염기서열·발현 단백질·대사물질 등에 대한 생물학적 정보를 포함하는 오픈스 데

이터 등을 적극 활용해 단일 데이터를 보완해 나간다.

아울러 한미약품은 이번 과제를 통해 구축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조기 도입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가설이나 신규 후보물질을 실제 연구개발에 적용해 검증하는데 그 결과를 다시 인공지능 학습에 반영하는 선순환 연구 체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미약품 최창주 연구책임자(상무)는 “한미약품이 K-인공지능 국책과제 핵심 공동기관으로서 국내 인공지능 신약개발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전임상과 임상 간에 연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혁신신약 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LG생건, ‘LG트윈스’ 우승 기념 특별행사

더후 등 13개 브랜드 대표 제품 할인

LG생활건강이 오는 16일까지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LG트윈스의 한국시리즈 4번째 통합 우승’을 기념하는 특별 행사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화장품부터 생활용품까지 할인을 적용하고 경품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더후, 오후, LG프라임, 닥터그루트 등 총 13개 브랜드가 참여하며 각 브랜드 온라인 직영몰과 백화점 및 마트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대표 제품 중심으로 최대 50% 할인 또는 1+1 행사를 진행한다.

최근 새로 출시한 만능 뷰티 디바이스 ‘LG프라임 수퍼폼 써마샷 얼티밋’의 경우 27% 즉시 할인과 1만원권 쿠폰이 함께 구성됐다. 레더 볼캡, 바시티 자켓, 리유저블 백 등 LG트윈스 굿즈는 추첨으로 받을 수 있다.



‘LG원인 페스티벌’이미지

/LG생활건강

아울러 쿠팡, GS샵, 롯데홈쇼핑 등에서는 LG생활건강 생활용품을 2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여행용 칫솔 세트 등 사은품도 마련됐다.

/이청하 기자

동국제약 “가을철 탈모, 미리 관리하세요”

큰 일교차 등 두피 손상 위험 커져

최근 들어 기온이 급격히 낮아진 가운데, 동국제약은 가을철 큰 일교차에 따른 모발과 두피 관리가 요구된다고 9일 밝혔다.

동국제약에 따르면 여름철 과도한 피지 분비 이후 가을철 건조한 공기로 두피가 건조해지면 모발 성장 주기가 불안정해지고 휴지기 모낭 비율이 증가해 탈모가 악화될 수 있다.

또 가을을 맞아 늘어난 야외 활동 중에 두피가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손상 위험이 커지기도 한다. 땀, 먼지, 피지 찌꺼기는 심하면 염증성 탈모를 유발한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탈모는 입증된 탈모치료제를 통해 초기부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약용효모 성분이 함유된 판시딜과 함께 올바른 두피 관리 습관으로 가을철 탈모를 현명하게 극복할 길 바란다”고 말했다.

판시딜은 경구용 탈모치료제로, 모발이나 손톱을 구성하는 성분인 케라틴, L-시스틴, 모발 영양 성분 약용효모, 비타민 등 6가지 성분을 처방했다. 모발 필

수 영양성분들이 혈액을 통해 모근조직 세포에 직접 공급되면서 머리칼이 굵어지고 덜 빠지게 되는 탈모보조치료 효과를 갖췄다.

국내에서 시행한 약용효모 복합제제에 대한 임상 결과, 복용자의 79%가 모발이 굵어졌으며, 빠지는 모발의 수가 45% 감소하고, 전체 모발 수는 1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시딜은 일반의약품으로 하루 세 번 1캡슐씩 3~6개월 동안 꾸준히 복용하면 된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성욕감퇴나 발기부전 등 성기능 관련 부작용 걱정이 없어 탈모 초기부터 장기간 안심하고 복용 가능한 것도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아모레퍼시픽 ‘오설록’

제주 말차 신제품 3종

아모레퍼시픽의 고급 차(茶) 브랜드 오설록이 제주 말차로 완성한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오설록은 제주 다원에서 재배한 고품질의 말차를 차와 디저트 등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도록 ‘제주 말차 오프 블렌드’, ‘말차 그레놀라 쿠키’, ‘말차 스트로베리 트러플’ 등 총 3종을 선보인다.

제주 말차 오프 블렌드는 제주 고품질 말차에 귀리, 아몬드, 대두, 코코넛 등 식물성 원료를 조합했다. 말차 특유의 진한 풍미와 식물성 원료의 고소함을 어우러져 밀크티 맛을 구현한다. 밀크티를

즐기기 어려웠던 비건 소비자를 고려해 우유 대신 식물성 원료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말차 그레놀라 쿠키는 건강 간식으로 제주 말차에 귀리, 각종 견과류 등이 더해졌다. 말차 스트로베리 트러플은 상큼한 동결 건조 딸기에 씹스러운 말차 초콜릿을 입혔다. 두 제품 모두 말차와 다른 원료의 조화를 한층 끌어올려 디저트의 완성도를 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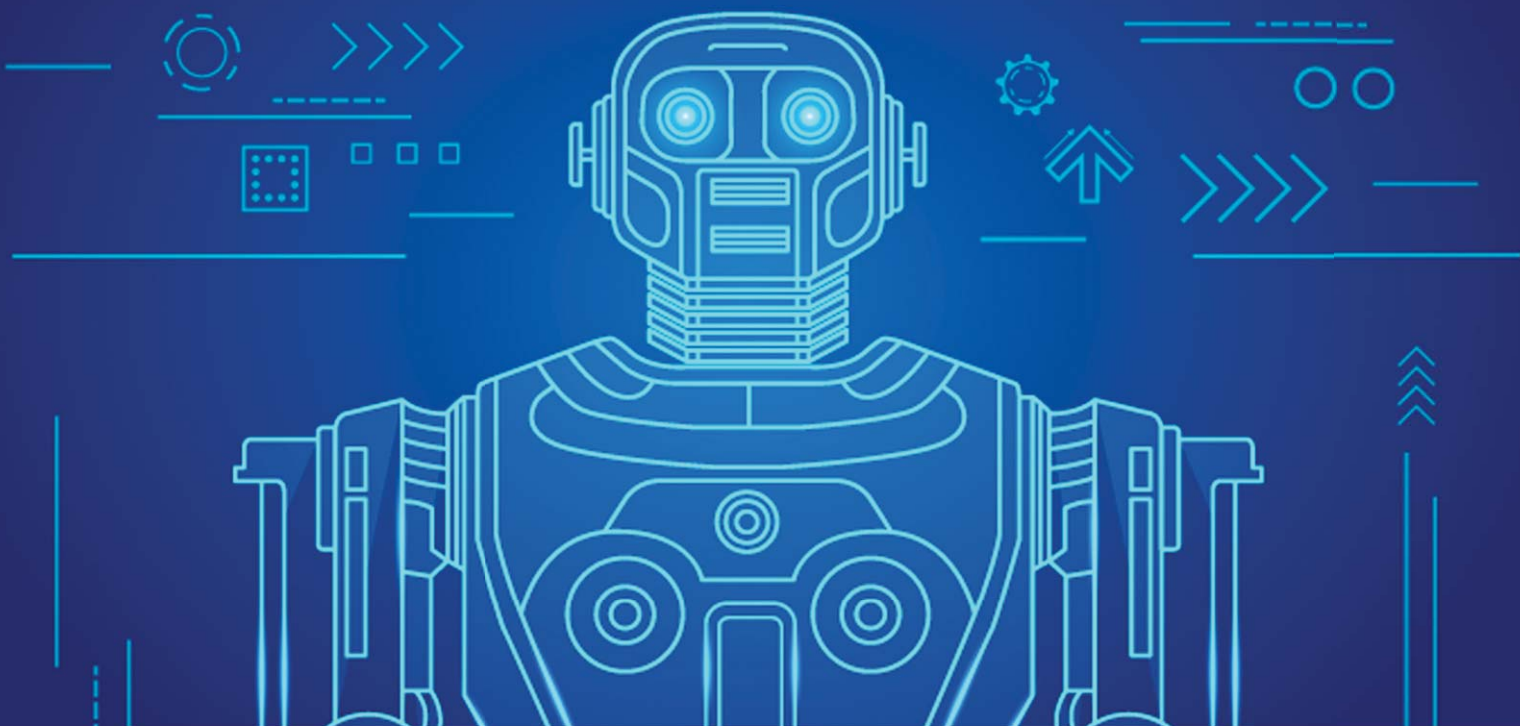
오설록은 이번 말차 신제품 3종과 함께 ‘제주 호지차 밀크티’도 출시해 밀크티 제품군을 강화했다. 진한 제주산 호지차, 부드러운 우유, 달콤한 바닐라 향을 경험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지형

| 일시 | 2025년 11월 19일(수) 오후2시 |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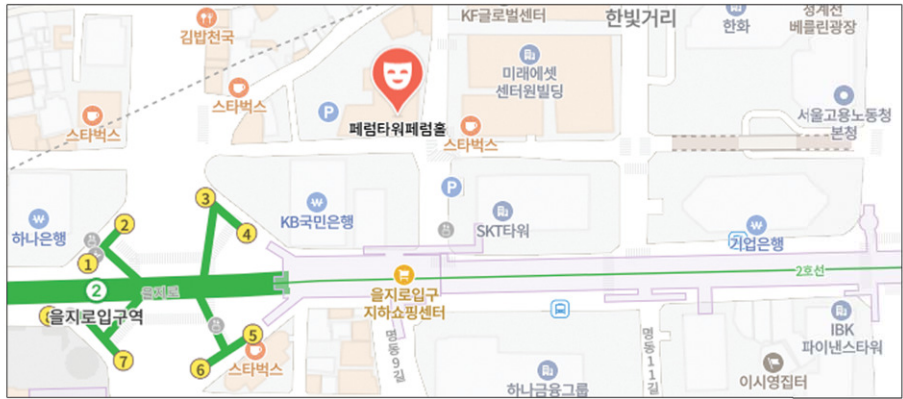


● 행사개요

행 사 명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
주 제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지형
일 시 2025년 11월 19일(수)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등 록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 의 뉴테크놀로지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오시는 길

페럼타워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19
(2호선 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도보 3분)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20	〈축사〉 조풍연 한국 SW-ICT 총연합회장(메타필드 대표) 유태준 마음AI 대표 겸 한국피지컬AI협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4:50	유태준 마음AI 대표 겸 한국피지컬AI협회장
강연	14:50~15:20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
	15:20~15:50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
	15:50~16:20	양수열 클라우드웍스 CTO
	16:20~16:50	김하늘 에임인텔리전스 이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한샘, 지역사회 공간개선 사업 1000호 돌파

한샘이 지역사회 노후 공간을 새롭게 단장하는 공간개선 사업이 1000호를 돌파했다. 9일 한샘에 따르면 공간개선 사업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공간의 기준을 만들어 모두의 일상에 가치를 더한다’는 기업 철학을 지역사회에 실천하기 위해 2015년부터 지속해온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한샘



애경산업, 사내 안전문화 확산 행사 진행

생활유틸리티기업 애경산업이 지난 7일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종합기술원에서 사내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제5회 AK Safety Day’ 행사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AK Safety Day는 애경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EHS(환경·보건·안전)에 대한 자사의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전파하고 전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사다.

/애경산업



스타벅스, 소방공무원·가족 1000명에 커피 전달

스타벅스 코리아가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재난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스타벅스는 지난 6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직접 방문해 소방공무원 및 그 가족 등 1000여 명이 즐길 수 있는 커피와 푸드를 전달했다.

/스타벅스



더벤처, 부산지역 고등학교에 수능응원 음료 제공

커피 프랜차이즈 더벤처가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 부산 지역 고등학교를 방문해 감작 음료 무료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더벤처는 이를 동안 해강고등학교, 신도고등학교, 해운대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음료를 증정하며 격려의 마음을 전달했다.

/더벤처



우리금융, ‘사랑의 연탄 나누기’ 사업 실시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2025 사랑의 연탄 나누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임직원, 우리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캠퍼스 WOORI’ 48명은 서울시 성북구 정릉3동에 소재한 취약계층 가정집을 방문해 직접 연탄을 배달했다.

/우리금융

롯데, 장애인 인식개선 ‘제10회 슈퍼블루 마라톤’ 성료

누적 참가자수 약 8만명 달해
김지우 작가, 휠체어로 완주
롯데 계열사들도 대회 동참

롯데가 스페셜올림픽코리아와 함께 지난 8일 서울 상암동 평화의공원 평화광장 일대에서 ‘제10회 슈퍼블루 마라톤’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슈퍼블루마라톤’은 롯데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장애인의 희망과 자립을 상징하는 파란색운동화끈을 묶고 함께 달리는 행사다. 2015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했으며, 누적 참가자 수는 약 8만명에 달한다.

롯데는 발달장애인 스포츠활동 지원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와 2014년부터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슈퍼블루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슈퍼블루 캠페인은 장애인에 대한 바른 언어 사용과 인식 개선을 목표로



롯데가 8일 서울 상암동 평화의공원 평화광장 일대에서 제10회 슈퍼블루마라톤을 개최했다.

/롯데

하며, Beautiful Language Use will Echo(아름다운 말은 울림이 됩니다)의 약어이다. 슈퍼블루마라톤은 매년 가을을 진행하는 슈퍼블루 캠페인의 대표 행사다.

올해 대회에는 롯데지주 임성복커

뮤니케이션실장, 정양석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 및 나경원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명예회장, 홍보대사인 김지우 작가를 비롯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롯데 임직원 등 약 800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정해진 코스를 함

SK온, 헝가리 발달장애인 음악축제

파라필리크 등 3개팀 참여

SK온은 8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어러니티즈 문화센터에서 제2회 헝가리 발달장애인 음악 축제(GMF in Hungary)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GMF는 SK이노베이션이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발달장애인 음악 축제다. 지난해 SK온 유럽생산법인인 있는 헝가리에서 처음으로 유럽 현지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헝가리 발달장애인 음악협회 소속 ‘파라필리크(Parapillek)’와 ‘파라포니아(Parafonia)’, 한국의 ‘비바체 앙상블’ 등 총 3개 팀이 참여했다. 파라필리크는 SK이노베이션과 SK온의 지원으로 지난 2023년 창단된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다. 파라포니아는 20년 역사와 함께 해외에서도 초청받을 만큼 수준급 연주 실력을 자랑하는 앙상블이다. 비바체 앙상블은 동갑내기 바이올로니스트(최윤정)와 비올리니스트(류종원)로 구성된 듀오로, 제5회 한국 G

/원관희 기자 wkh@



8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어러니티즈 문화센터에서 열린 제2회 ‘GMF in Hungary’에서 헝가리 발달장애인 음악협회 소속 오케스트라 ‘파라필리크(Parapillek)’가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SK온

MF 대상을 받았다. 특히 이들이 피날레 곡으로 선보인 ‘아리랑’은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김세진 SK온 유럽생산법인장은 “국경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음악으로 하나 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한국과 헝가리가 경제 협력에서 나아가 마음으로 더욱 가까워지도록 소통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LG전자, 시험장 냉난방 설비 점검

하이엠솔루텍, 전국 시험장 점검
삼성전자서비스, 260여곳 순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전국 시험장 냉난방 설비 점검을 진행중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 시스템에어컨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하이엠솔루텍은 오는 12일까지 전국 수능 시험장의 냉난방 설비를 점검한다. 서비스 엔지니어들은 ▲실외기 팬 작동 상태 ▲과열 여부 ▲교실 내 온도 유지 상태 등을 세밀히 확인하며 수능 당일 안정적인 난방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하이엠솔루텍은 2010년부터 매년 수능 시험장을 방문해 냉난방 설비의 작동 상태를 점검해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LG 비컨 클라우드’를 적용한 서울 지역 시험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는 관리 대상을 80여 곳으로 확대했다. LG 비컨 클라우드는 시스템 에어컨의 운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 제어하는 솔루션이



삼성전자서비스 엔지니어가 수능 고사장에서 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 사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다. 하이엠솔루텍은 수능 당일에도 전국 주요 고사장 인근에 긴급 대응 인력을 배치하고 각 시험장과 핫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서비스도 전국 10개 시도 교육청 관할 260여 개 고사장을 대상으로 오는 12일까지 ‘시스템에어컨 사전 점검’을 진행한다. 전문 엔지니어가 고사장을 순회하며 ▲냉·난방 시험 가동 ▲실내·외기 소음 ▲필터 오염도 등 전반적인 동작 상태를 점검한다. 삼성의 실시간 모니터링 프로그램 ‘S-NET’을 활용해 주요 부품의 동작 상태와 온도 변화를 분석하고 잠재적인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한다.

/정희준 기자 nauta@

GS리테일, 파트너사 동반성장 도모

‘제11회 유어스데이’ 열어

GS리테일이파트너사와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제11회 유어스(YO U S)데이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유어스데이는 GS리테일이 협력사를 초청해 동반성장의 의미를 되새기고 상생 경영의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행사명은 GS리테일의 통합 P B 유어스에서 따온 것이다.

올해 행사는 지난 11월 5일과 6일 양일간 고양시 행주산성과 서울 남산 공원에서 진행됐으며 GS리테일 임직원 170여명과 GS25 및 GS더프레

시 파트너사 400여명 등 총 57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둘레길을 함께 걸으며 트렌드 리딩 상품 발굴과 판로 확대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GS리테일은 유어스데이와 함께 2005년부터 정도경영 계시판을 비롯한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며 파트너사 임직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왔다. 이러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동반성장을 지속 추진한 결과, 2024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유통 대기업 중 유일하게 대기업 기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다.

/손종욱 기자

하나은행, 해외거주 교민 맞춤형 자산관리

인니·홍콩 ‘패밀리 오피스 세미나’

하나은행이 해외 거주 교민들의 자산관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홍콩을 방문, 맞춤형 자산관리 세미나 ‘해외로 찾아가는 패밀리 오피스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

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4월 대만 타이베이(Taipei)지점에서 대만한인회 교민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교민 자산관리 지원을 아시아 주요 거점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유리 기자 yul115@

인사

- ◆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인천고용센터소장 신욱균
- ◆ 국가데이터처 ◇고위공무원 가급 전보 △국가데이터처 차장 이명호

부음

▲ 장우진씨 별세, 정지원(전 한국거래소 이사장·법무법인 세종 고문)씨 모친 상= 9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1일, 장지 한남공원묘원.

유언대용신탁 건물 처분대금 적법성



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갑(甲)은 사망을 대비해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갑의 사망후, 건물을 팔고 대금을 갑의 조카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었다.

유언대용신탁계약이란 유언을 대신할 수 있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생전에 본인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신탁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망시 그에 따라 자동 이행되도록 설계하는 방식이다.

건물은 수탁자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됐다.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위탁자(갑)이 사망하면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는 수익권을 갖게 된다. 이 경우 갑의 조카들이 수익자로 지정되었고, 수익권의 내용은 '건물의 처분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였다.

갑 사망 후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물이 팔렸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에게 경료됐다. 매매대금은 갑의 조카들에게 미리 정해둔 비율에 따라 배분됐다. 그런데 강남구청장은 조카들이 건물을 상속취득

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했다. 조카들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카들의 손을 들어줬다(서울행정법원 2024. 10. 25. 선고 2023구단62970 판결). 이들은 '조카들에게는 건물이 상속된 적이 없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적도 없어, 재화의 이전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조카들이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해 건물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주요 이유는 이렇다.

첫째,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수탁자 회사에게만 경료됐을 뿐이고, 조카들은 소유권을 취득한 적도 없다. 따라서 법원은 조카들이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둘째, 위 지방세법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카들은 유언대용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단지 건물의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한 것 뿐으로, 이러한 '신탁 수익권'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열거된 취득세 과세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셋째, 수탁자 회사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시 갑의 사후수익자 대표로서 조카들이 매매계약에 기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명날인 돼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조카들이 건물을 '취득'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 역시,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이유로 삼았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조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서울고등법원 2025. 4. 23. 선고 2024누68714 판결). 법원은 만약 유언대용신탁계약의 내용이 위탁자 갑의 사망으로 인해 조카들이 수익권을 행사해 건물, 즉 '신탁재산의 원본'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조카들이 건물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수익권의 내용이 건물의 '매매대금 등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카들이 수탁자 회사로부터 건물 자체를 사실상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역시 서울고등법원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법무법인 바른

지방 부실채권의 악순환



기지수첩

안재선
(유통&라이프부)

최근 제주도를 찾았을 때 1600평 가량의 토지에 '본건매각'이란 풋말을 발견했다. 이렇게 넓고 황량한 토지를 매각하려는 이유가 뭘까. 이를 추적해 보니 그 끝에는 예상치 못한 상호금융권 발 부실채권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과정은 이렇다. 제주도 한 상호금융에서 도민 A 씨에게 해당 농지를 담보로 잡고, 약다섯 차례 대출을 내주었다. A씨가 대출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자 농지는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

그럼에도 회수가 어렵자 상호금융권은 보유하고 있던 A 씨의 채권을 부실채권(N

PL) 시장에 매각했다. 부실채권을 털어내 연체율 상상을 방어한 것이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문제는 없다. 진짜 문제는 이후다. 부실채권이 부실채권 자산관리 전문업체에게 넘어가도 리스크는 잔존한다. 경매로 넘어간 해당 땅은 반복 유찰됐다. 유찰로 인해 감평가 9억원에서 최저 경매가 3억원까지 떨어졌다. 담보 가치 하락이다.

담보 가치가 하락한 농지, 이를 담보로 잡은 채권은 자산관리 전문업체 입장에서 골치이다. 지방 농지의 경우, 땅을 매입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경우 그 절차와 요건이 더 까다롭다. 상호금융권으로 부실채권을 사들인 자산관리 전문업체가 해당 농지를 직접 소유한 뒤 자산화할 유인도 크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국 이 부실채권은 다시 일반 투자자들

향한다. 자산관리 전문업체들은 이 부실채권을 넘기기 위해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하면 경매에 나온 이 땅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한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아 토지를 보유하게 되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고도 유인한다.

부실채권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 위험은 형태만 바뀔 채 시장을 맴돈다. 인구감소, 농지취득증명서 등 규제로 지방 농지의 투자 수요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도 모른 채, 지방 상호금융권이 계속해서 부실 심사대출을 감행하고 이를 부실채권화 해 시장에 되판다면, 그 부실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뇌관으로 집중될 뿐이다. 부실채권 매각이 다가 아니다. 구조적인 위험을 낮추기 위해 상호 금융권의 느슨한 부실대출 심사 관행부터 손봐야 한다.

/wotjs4187@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1월 10일 (음 9월 21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예나 지금이나 좋은 묘택자를 찾는 것은 늘 있었다. 48년생 결장이 늦어져 일이 미뤄진다. 60년생 마가 끼니 초조하지 않도록. 72년생 상복 수로 형제 잃는 운세. 84년생 가까운 사람과 금전거래 하느니 그냥 주아라.



소

37년생 인정어 많은 것은 칼에 녹이 슬듯이 독이 될 수도 있음. 49년생 상사의 험담을 논하지 마라. 61년생 늘 준비하자. 73년생 결혼 인연이 재물 이상으로 값지다. 85년생 앞질러지는진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하니 문서 살펴라.



호랑이

38년생 마음은 바쁘지만 따라가지 못해 답답. 50년생 송사에 걸릴라. 다툼에 참견마다. 62년생 같은 토끼따와 일하다 중도 포기된다. 74년생 이상과 현실에서 고민 생기는 뻘뻘한 하루이다. 86년생 날이 밝아 오니 고민이 사라진다.



토끼

39년생 남녀 간에 생각이 다르니 다름으로 번지지 않도록. 51년생 사고의 후유증이 되살아나서 심신이 괴롭다. 63년생 아침부터 바빠진다. 75년생 지나친 간섭은 집착 증세로 보일 수. 87년생 뒤늦게 경쟁자가 생기니 양보해야만.



양

40년생 작은 이익이 생겨서 활기차다. 52년생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된다는데. 64년생 계획이 생기니 의욕도 충전. 76년생 부부간에 지켜야 할 일이 깨어져 너무 큰 상처를 받는다. 88년생 참석해야 할 경조사를 잘 챙겨보도록.



뱀

41년생 음의 기운이 강하니 새 세상은 눈을 뜬다. 53년생 수입과 지출을 적어보라. 65년생 분노 조절 상태를 왜 직장에서 찾으려 하는가. 77년생 오후 모임에서 좋은 인연이 생긴다. 89년생 동업자와 문제가 있으나 서로 양보하게 된다.



말

42년생 작은 이익 때문에 친구와 분쟁이 생기니 신중히 생각하라. 54년생 하루가 조용하다. 66년생 종일 상태 조절이 필요하다. 78년생 계약 문제는 오후에 물꼬가 트인다. 90년생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라 내일이 있다.



양

43년생 진행하는 일에 결과가 따른다. 55년생 영업에서 큰 이익이 기다리고 있다. 67년생 명성을 얻게 되어 행운이다. 89년생 여럿 모이는 산행에서 시간표를 다시 짜야 할 필요성이. 91년생 비 온 뒤에 다시 땅이 굳어지는 것과 같다.



원숭이

44년생 여행을 바라거나 일을 미루면 손해. 56년생 활력이 아닌 조직에도 이득이 생기니. 68년생 지속해서 나가는 자제로 영업에 몰두하자. 80년생 재개발문서가 해결될 것이나 기다려야. 92년생 말미와의 거래가 순조로우니 경사롭다.



닭

45년생 노력하여 일이 풀리니 근심이 사라진다. 57년생 혼자만의 명상을 해보라. 69년생 남의 눈치보다는 노력하여 능력을 발휘하도록. 81년생 가족회의로써 의논하여 일의 성취가 된다. 93년생 저녁에 일찍 귀가하여 지출을 줄여보자.



개

46년생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도 있으니 먼저 베풀어라. 58년생 분수를 알면 행운이 찾아온다. 70년생 내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마라. 82년생 언제나 종이 제 머리 못 깎으니 협조 정신을 발휘. 94년생 공짜 좋아하다 망신 수가 발생한다.



돼지

47년생 가정사 선택의 갈림길에서 갈등이다. 59년생 부부간에 모처럼 외식으로 즐겁다. 71년생 시간약속을 잘 지켜라. 83년생 친구 일에 나서서 문제해결을 해준다. 95년생 가족 내부의 남비 요소를 찾아내어서 밀 빠진 독을 막도록 해야한다.

김상회의四季

태극이 무극



'태극(太極)이 무극(無極)'의 표현은 '우주' 생성과 변화의 원리를 한마디로 줄인 것이다.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변화하며, 따라서 그 우주의 속성과 실체를 정의하는 한 것이다. 한없이 텅빈 가운데 만물이 태동하고 시작하는 것을 뜻한다. 그 우주 중 수많은 나라 가운데 우주의 속성과 정의를 근간으로 그 정체성을 삼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국기인 태극기가 그것이다. 태극기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陰)과 양(陽)의 조화를 상징하며, 우주 만물은 빛과 어둠이라는 음양의 상호 작용으로 생명이 발현되고 만물은 자라고 변화한다. 네 모서리의 사괘는 주역의 기본 4괘로서 하늘(건괘, 乾卦)과 땅(곤괘, 坤卦), 물(감괘, 坎卦)과 불(이괘, 離卦)을 나타내며 천지자연을 의미한다.

이같이 우리 선조들의 의식 속에 확연히 자리 잡고 있던 우주 세계관은 우주의 한 구성요소로서 어떻게 실존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인식이다. 그 어느 민족도 생각해내지 못한 원융하고 깊은 인식이자 통찰이다. 우리 한 민족은 숫자 3을 상서로운 숫자로 아름답게 여긴다. 석삼(三)은 만물의 조화를 나타내는 숫자다. 솔은 다리가 네 개가 아닌 세 개다. 보통 다리가 4개면 더 안정되리라 생각하는데,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은 다리가 세 개일 때다. 그래서 솔(𪎭)은 천자의 그릇을 의미했다. 하늘과 땅, 그사이에 인간 이렇게 천지자연 속에서 인간이 머리로는 하늘을 이고 다리로는 땅을 의지하여 하늘과 땅의 천명을 잘 받들어 다스리는 것이 천자의 임무였고 이는 하늘로부터 받은 신성한 의무로 여겨진 것이다. 그래서 천지인 삼합을 의미하는 상징이기도 하며 임금, 천자를 의미하는 한자 '왕(王)'이다. 대한민국은 태극이 무극이라는 말로서 배달민족의 꽃을 피워나가는 시기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8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9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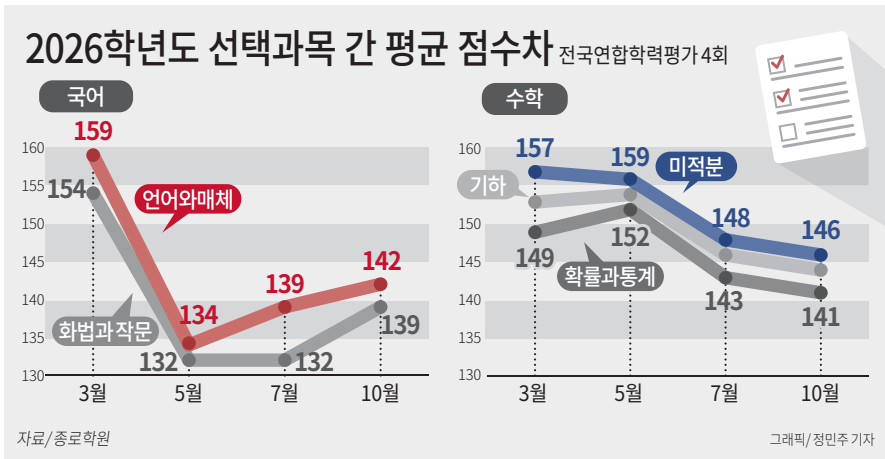
언어와 매체·미적분 표점 높아… 수능 선택과목 유불리 여전

〈표준점수〉

2026학년 학력평가, 모의고사 분석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미적분’
표준점수 최고점 더 높아 유리해
응시자 줄어 정시 영향력 감소할 것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선택 과목 간 유불리 현상이 이어질 것
으로 보인다. 2022학년도 이후 이같은
현상이 지속돼 왔다. 특히 국어에서는
‘언어와 매체’, 수학에서는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표준점수에서 유리한
구도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6학
년도 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3월·5월·7월·10월) 4회와 평가원 모의
고사(6월·9월) 2회 모두에서 국어는 ‘언
어와 매체’가 ‘화법과 작문’보다, 수학은
‘미적분’이 ‘확률과 통계’보다 높은 표준
점수 최고점을 기록했다.



수학의 경우 동일 원점수(30문항 만
점)를 받았을 때 표준점수가 미적분이
확률과 통계를 앞서는 현상이 전 구간에
서 확인됐다.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는 ▲3월 (미적
분 157점, 확률과 통계 149점) ▲5월
(156점, 152점) ▲7월 (148점, 143점) ▲
10월 (146점, 141점)으로, 4점에서 8점

차이를 보였다.

기하 역시 같은 기간 각각 153점, 154
점, 146점, 144점으로 확률과 통계를 상
회했다.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 이후 본
수능에서도 같은 경향이 이어지고 있
다. 2022학년도 3점, 2023학년도 3점,
2024학년도 11점, 2025학년도 5점 차이

로 미적분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확률
과 통계보다 모두 높았다. 기하 역시 대
부분 회차에서 확률과 통계보다 높게
형성됐다.

국어 역시 2026학년도 6차례 모의고
사 모두 ‘언어와 매체’가 ‘화법과 작문’
보다 표준점수가 2점에서 7점까지 높게
형성되며 선택과목 유불리가 나타났다.

통합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이후
34차례 모든 시험(교육청 모의고사 20
회, 평가원 모의고사 10회, 본수능 4회)
에서 언어와 매체가 화법과 작문보다 최
소 1점에서 최대 7점까지 표준점수가 높
게 나타났다.

이는 표준점수 산출 방식과도 관련이
있다. 표준점수는 선택 과목 응시자 집
단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해당 과목 응시 집단의 평균이 높을수록
동일한 원점수를 받아도 표준점수가 더
높게 형성된다. 미적분과 언어와 매체

응시 집단은 상위권 학생 비율이 높아,
원점수 기준 평균이 높은 집단으로 추정
된다. 이로 인해 같은 100점을 맞더라도
과목별 응시 집단 수준에 따라 표준점수
상 불리함이 발생하는 구조가 이어지는
것이다.

2026학년도 수능에서도 국어는 언어
와 매체, 수학은 미적분 선택 학생들이
높은 표준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자연계 학생들이 정시에서 문
과 교차지원이나 무전공 선발 전형에 도
전할 때 유리한 구도가 예상된다.

다만 올해 수능 접수 인원 기준으로는
미적분 응시자가 전년보다 3만6617명
(15.0%), 언어와 매체 응시자는 1만3868
명(7.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권 고득점자 규모가 감소하면서 실제 정
시에서 이들 과목 선택자의 영향력은 지
난해보다 다소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단풍 따라 힐링을… 경기도 숲길 6곳 추천

경기관광공사, 휴양림·숲길 등 소개

경기관광공사는 11월 가을 정취를 만
끽하며 휴식과 치유를 즐길 수 있는 경기
도 내 아름다운 숲길 6곳을 추천했다.

가을이 깊어간다. 초록의 숲이 가장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는 계절이다. 잠깐
머물다 사라지는 단풍의 순간을 놓치기
엔 너무 아쉽다. 요즘처럼 선선한 날씨
는 숲길을 걷기 딱 좋다.

이번에 추천된 곳은 ▲호반의 풍경이
아름다운 가평 청평자연휴양림, ▲숲속
위로가 함께 하는 연천 고대산자연휴양
림, ▲주민이 함께 만든 의정부 자일산
림욕장,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양평 국립양평치유의숲, ▲작은 도
시 속의 숲 부천 무릉도원수목원, ▲산
책·트레킹·등산이 하나로 즐길 수 있는
광명 구름산산림욕장 등 6곳이다.

청평자연휴양림은 북한강과 청평호를
품은 곳이다. 호수를 따라 이어지는 도로
가 여행의 설렘을 더한다.

경기도 최북단에 자리한 고대산자연
휴양림은 도시의 소음을 잊게 해주는 진
정한 쉼터다. 산책로 전 구간이 무장애
길로 조성되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편
안하게 걸을 수 있다.

의정부의 첫 산림욕장이자 주민의 손
으로 만들어진 자일산림욕장은 개장 2년
차의 따끈한 공간이다. 개발제한구역으
로 묶여 있던 숲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
하며 조성된 이곳은 ‘함께 만든 숲’의 온
기가 그대로 느껴진다.

이름 그대로 ‘치유’를 주제로 한 국립
양평치유의숲은 걷기 좋은 길과 체형 프
로그램이 잘 어우러져 있다.

부천자연생태공원 안에 자리한 무릉
도원수목원은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끽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광명 ‘하안동과 소하동 일대에 걸친
구름산산림욕장은 접근성이 좋아 돌레
길을 따라 걸으면 산책을, 정사까지 오
르면 가벼운 등산이 된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준비 도와드려요”

‘어린이집 학부모 연수’ 첫 실시
유아 성장발달, 초교 입학정보 제공
유보통합 맞춰 공교육 신뢰 강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0일
충무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어린이집 학
부모 연수’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9일 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유치원
학부모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육청 연
수들, 유보통합 정책 시행에 따라 만 3~
5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학부
모까지 확대해 추진한다.

이번 연수는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학부모의 역할을 안내하

고, 초등학교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하여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
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에 앞둔 자녀의 학
교 적응, 학습 태도, 교우 관계 등과 관련
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자녀 발달 단
계에 맞는 양육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
었다.

주요 프로그램은 ▲영유아 교육·보육
전문가의 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학부모
역할 강연 ▲현직 초등학교 교사의 ‘초
등학교 교육과정과 학교생활 안내’ ▲샌
드아트 공연 ▲학부모와의 소통·공감 시

간으로 구성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유보통합 정책의 일
환으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간 이음교
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아·교사·학부
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
부모들이 유아기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
초등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
교육 부담을 줄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
다”며 “아이 한 명 한 명의 행복함 배움을
지원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
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내년부터 ‘반값 조리원’ 문 연다

민간산후조리원 5개소 공모·가동
2주 250만원, 저소득층 100% 감면
취약계층, 다자녀 산모 우선입소권

서울시가 민·관 협력 ‘반값 조리원’을
선보인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민간과 손
잡고 시내 조리원의 평균 이용 금액 반
값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
고 9일 밝혔다.

서울 시내 민간 산후조리원 2주 이용
평균 비용이 491만원으로, 최고 4020만
원(올해 6월 기준)에 달한다.

시는 2026년 민간산후조리원 5개소를
공모해 상반기 중 가동하고, 시범 운영 성
과를 평가한 뒤에 2027년부터는 서울 전
역에서 서울형 산후조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전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시범 사업 참여 시설
을 선정하고 공공 운영 기준을 준수토록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공
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서울형 안심 산
후조리원’은 민간이 주체가 돼 시와 협
약을 맺고 운영한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 시내 산후조리원
산모실(총 1964실)이 출생아 수 대비 과
잉인 현실을 고려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
하면서도 보다 효율적인 협력형 대안으
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모델을 설
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취약계층, 다자녀 산모에게는
우선 입소권이 제공된다. 시는 민간 산
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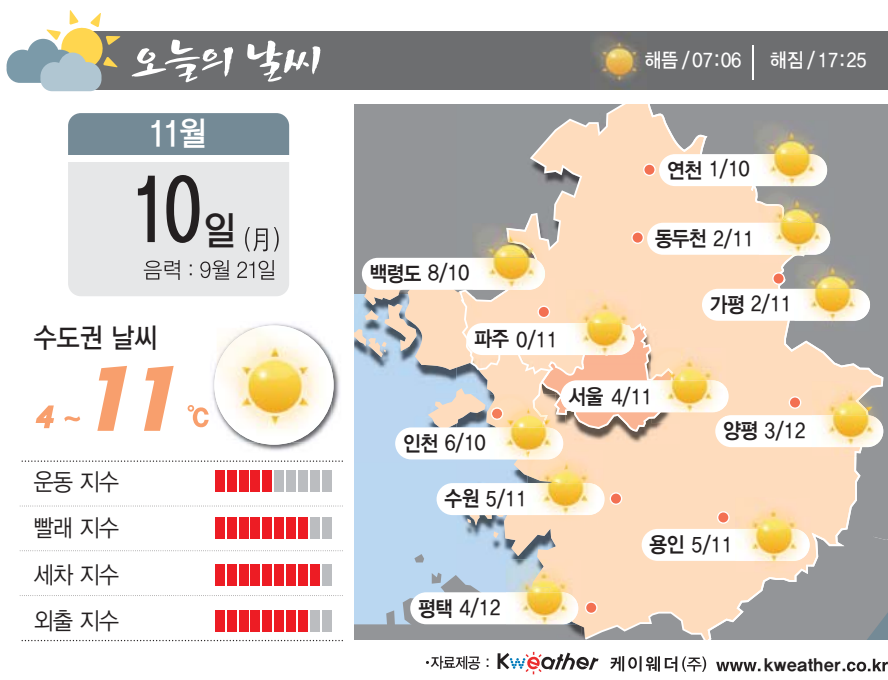
의 입소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모든 산모
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방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작년 출산한 전체 산모의 85.1%는 산
후조리원을 이용했으나 가구소득 60%
미만 가구 산모는 38.6%만 조리원을 이
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는 취
약계층 지원으로 조리원 이용 격차를 줄
이고, 다자녀 우선권을 통해 출산율 제
고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2주 이용
기준 390만원 표준요금을 적용하지만,
산모는 250만원만 내면 된다. 나머지
140만원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다자녀
가구·한부모 가정 등의 경우 50%, 저소
득층은 100%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통해 산모 회복뿐 아니라 가정으로 이어
질 신생아 돌봄 역량을 높여주는 표준화
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트럼프, 유류 포장업체 담합 등 조사…생활비로
지방선거 패배후 나와
▲덴마크, 15세 미만 SNS 접근 금지 법안 예고…
“위해 콘텐츠 문제”
/사진 뉴시스

▲美 연방정부 폐쇄로 항공기 감축 운항 이틀째…
1000편 이상 항공편 취소
▲브라질 남부 파라나주, 토네이도로 6명 사망
750명 부상

▲미국 민주당, 섣다른 장기화 이용 트럼프정부의
급식지원 중단 집중 부각
▲이스라엘, 주말에도 가자 공격 2명 살상…사망
자 총 6만9000명 넘어



‘간편 미식’
프리미엄 라면
전성시대
L1

metro[®]

Life

뷰티 제조기업
해외시장 확장
3분기 호실적
L2



“흑백 기록에서 그리움의 색으로… 세월호 기억 그렸죠”



새벽을 여는 사람들

박 건 웅 그래픽노블 작가

세월호 10년, 잊힘을 거스르는 한 작가의 붓끝이 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래픽노블 작가 박건웅이 세월호를 주제로 한 그림책으로 슬로바키아 'BIB(브라티슬라바 일러스트레이션 비엔날레)'에서 상을 받았다. 25년 동안 한국 현대사의 상처를 흑백으로 기록해온 그는 이번에는 색으로 기억을 그렸다.

박건웅 작가는 “이번엔 그리움의 색으로 담아보고 싶었다. 슬픔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의 사랑과 기억으로 담았다”고 말했다.

박 작가는 수상 연락을 받은 당시를 회상하며 미소를 지었다. 수상 소식이 뜻밖이었기 때문이다.

박 작가는 “상갓집 가는 길에 국제전화가 와서 스팸인 줄 알고 끊었다. 나중에 메일 휴지통을 보니 ‘축하합니다’라는 단어가 보였고 그제야 BIB에서 수상을 한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진지한 얼굴로 바뀌면서 다시 입을 열었다. “운이 좋았다면 이 작품이 세월호를 참사가 아니라 그리움의 이야기로 본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건웅은 자신을 ‘기억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대표작 ‘노근리 이야기’, ‘집승의 시간’, ‘남영동’ 등은 모두 한국 현대사의 고통을 다룬 그래픽노블이다. 전쟁의 학살, 고문의 기록, 억압된 기억 등 ‘말해지지 못한 역사’를 그림으로 붙잡았다. “전쟁이든 독재든 결국 인간의 이야기다. 어떻게 견디고 살아남는가, 인간은 어디까지 잔혹할 수 있는가 등을 그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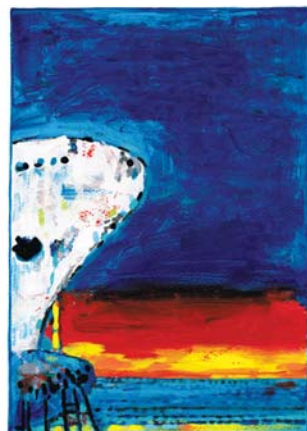
박 작가의 작업은 기록이자 복원이었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이들을 직접 찾아다녔다고 증언을 듣고, 오래된 사진을 뒤지면서 잊힌 얼굴의 윤곽을 되살렸다. “작가도 기자처럼 세상을 걸어야 한다. 숨겨진 이야기를 세상에 보이게 하는 게 내 일이다”고 말했다.

그의 그림 속 인물은 현실보다 조용하지만, 더 오래 눈에 남았다.

그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강으로 흐른다. 만화든 그래픽노블이든 그림책이든 형식만 다를 뿐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강이다. 중요한 건 그 강이 어디로 흘러가느냐”고 말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그리움’이었다. “어느 날 누군가가 ‘그림은 그리워하디의 준말’이라고 말해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광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그리고 있었는지 알게된 계기가 됐다”고 회상했다.

이후 그는 그리움을 주제로 작업을 이어갔다. 세월호 그림책 역시 그리움의 기록이



▲슬로바키아에서 열린 'BIB'에서 황금사과상을 수상한 박건웅 작가의 그림책 '세월 1994-2014'.



▲박건웅 작가의 집승의 시간(왼쪽)과 작은아리랑 표지.

◀박건웅 작가.

세월호 주제 그림책 ‘세월 1994-2014’ 세계적 그림책 비엔날레 ‘BIB’ 수상

25년간 흑백으로 한국사 상처 기록 전쟁, 독재 등 현대사의 잔혹함 담아

그리움이 준 깨달음, 인생 전환점으로 처음으로 컬러 사용한 세월호 그림책 고통보다 희망, 그리움의 온도 전해

예술은 존재를 잊히지 않게 하는 일 잊힌 사건·사람들의 이야기 그릴 것



‘BIB’ 황금사과상 트로피.

었다. “그림은 누군가를 그리워해서 그리는 것이다. 세월호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다시 꺼내려는 게 아니라, 남은 이들의 그리움을 담았다”고 말했다.

박 작가의 작품은 대부분은 흑백이었다. “처음엔 단순하게 비용의 문제였다. 컬러 인쇄비가 두 배가 높았기 때문이다”라며 웃었다.

하지만 흑백은 어느새 그의 언어가 됐다. “색이 없으면 보는 사람이 각자 다른 색을 떠올린다. 피를 검게 그려도 사람마다 각자의 붉음을 상상하게 되고 감정이 여과되지만 더 깊게 들어간다”며 “색을 쓰는 건 쉽지만, 빼는 건 용기다. 흑백은 인간의 내면을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세월호 그림책에서 그는 처음으로 컬러를 사용했다. “이번엔 밝고 따뜻하게 표현하고 싶었다. 슬픔보다 희망, 그리움의 온도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박 작가는 지금도 모든 그림을 작가용 테이블릿이 아닌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린다. “화면을 보면 눈이 아픈 것도 있지만 손으로 그릴 때는 기억이 더욱 선명하게 따라온다”며 “손으로 그린다는 건 시간을 담는 일이다. 잉크가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선이 빠지면 그대로 둔다. 그 불완전함이 인간의 흔적이다”고 말했다.

박건웅 작가의 작가 인생에도 암흑기는 존재했다. 바로 박근혜 정부 시절 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랐기 때문이다.

박 작가는 “확인된 건 없지만, 그때를 기

점으로 일감이 끊겼고 진행하던 공공기관 일도 취소됐다”며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버티고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작가에게 가장 힘든 건 돈이 아니라 목적을 잃는 것이다. 내가 왜 그리는지를 잊지 않으면 힘든 시기는 버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를 버티게 한 건 가족이었다. 박 작가의 부인 역시 만화가였기 때문에 의지가 배가 됐다. “둘 다 돈은 못 벌어도 서로를 이해했다. 누군가가 왜 돈을 못 벌어요냐고 했다면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고 털어놨다.

마지막으로 박건웅 작가는 “그림책이든 만화든 결국은 기억을 남기는 일이다. 누군가의 그리움이 다른 누군가의 기록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25년 동안 그는 흑백으로 시대의 상처를 기록했고, 이제는 그리움의 색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그리고 있었다.

박 작가는 “예술은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잊히지 않게 하는 일이다. 그게 내가 그리는 이유다”며 “세상에 없는 일을 할 때, 세상이 당신을 먹여 살릴 것이다’라는 좌우명으로 삼으면서 누구도 다루지 않았던 사건, 잊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겠다”고 말했다. 박건웅 작가는 그렇게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펜을 들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메시 2골1도움’ 인터 마이애미, 내슈빌 꺾고 MLS PO 8강행

▲백승호, 경기 5분 만에 부상 교체…“11월 A매치 불투명”

/사진 뉴시스

▲‘기성용 데뷔’ 무승부…K리그1 포항, 서울과 0-0으로 비겨

▲‘최고 대우’ 염경엽 감독, 최초 ‘30억원’ 사령탑 시대 열었다

▲의상대사 화엄 사상 보고 듣고 느끼다…‘의상화엄 문화체험전’

▲무용으로 ‘관계맺기’…제46회 서울무용제 21일 개막

KB 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모두의 선택엔 이유가 있었다

34세 디자이너
강하람 씨도53세 카페사장님
문재근 씨도31세 프리랜서 모델
한지영 씨도42세 엔지니어
이준영 씨도28세 플로리스트
이아영 씨도35세 직장인
박민호 씨도

IRP, 수익도 안정도
둘 다 놓칠 수 없으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입니다

KB퇴직연금 1:1 상담
퇴직연금 상담센터 1599-0099퇴직연금이 궁금할 땐
'KB스타연금' 유튜브로 확인

2025년 1분기 말 개인형 IRP

1년 원리금비보장형 전은행권 1위, 연평균 수익률 4.01%

(5년 은행권 3위, 연평균 수익률 4.79%),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공시



개인형 퇴직연금(IRP)

15년 연속 적립금 규모 1위

(2010년~2024년, 12월말 기준), 출처: 은행연합회 퇴직연금 비교 공시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산가격변동, 환율 변동, 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 전액 또는 일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과거의 운용성과가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 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당사는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 수수료는 연0.21%~연0.45%입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상담센터(1599-00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5-01775호(2025-04-29~2026-03-31) ※KB국민은행 준법감사인 심약필 제2025-1762호(2025.04.28.), 유효기간 2025.04.28.~2026.03.31.까지

KB 국민은행